

2010년 2월
석사학위논문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연구

–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심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주 설 희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연구

-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심 중심으로 -
- The public facility research for the image improvement of urban setting -

2010년 2월 10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주설희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연구

지도교수 황 영 성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30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주 설 희

주설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명 주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진 렐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황 영 성 인

2009년 10월 30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목 차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와 공공공간의 개념

제 1 절. 도시환경과 공공공간의 이해	4
1. 도시환경의 개념과 구조적 특성	4
가. 도시환경의 개념	4
나. 도시환경의 구조적 특성	7
2. 공공공간의 개념과 역할	16
가. 공공공간의 개념	16
나. 매개공간의 공공공간	18
제 2 절. 도시환경 공공공간의 디자인적 관념	25
1. 공공환경디자인의 이해	25
가. 공공환경디자인의 개념	25
나. 공공환경디자인의 필요성	31
다.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현 시점	32
2. 공공디자인의 패러다임 연구	33
가. 공공환경디자인과 문화	33
나. 공공환경디자인과 환경	40
다. 공공환경디자인과 디지털기술	41

제 3 절. 공간개념의 도시환경 이미지개선 연구	43
1. 공간의 이해	43
2. 공간과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에 관한 고찰	47
제 3 장. 상무신도심의 공공시설물 분석	
제 1 절. 공공시설물의 개념 및 유형	53
1. 공공시설물의 개념	53
2. 공공시설물의 분류	54
3. 공공시설물의 구성요소	56
제 2 절.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전략 . .	59
1. 도시환경 이미지개선과 공공시설물의 관계	59
2.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요소 연구 . .	61
제 3 절. 공공시설물 조사 및 분석	67
1. 사례분석의 목적 및 방법	67
2. 대상지의 개요	68
3.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71
제 4 장. 연구분석 결과	
1. 현황 및 문제점	82
2. 공공시설물의 개선방향	92
제 5 장. 결 론	96

표 목 차

[표 1] 연구 구성 체계도	3
[표 2]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미의 요소	6
[표 3] 도시 가로공간의 기능 및 특성	10
[표 4] 도시 공공 공간의 구성	18
[표 5] 도시 공공 공간의 역할	19
[표 6] 형성과정에 따른 공공공간 분류	22
[표 7] 현대도시의 공공공간의 유형과 특성	24
[표 8] 일반적인 환경의 유형	28
[표 9] 환경디자인 작품사례의 유형 종합	29
[표 10] 환경디자인에서 환경의 유형 종합	29
[표 11] 공공환경디자인의 관련 영역	30
[표 12] 인공환경을 둘러싼 관계	36
[표 13] 계획관점의 문화적 원천	38
[표 14]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인공 환경디자인의 방향	40
[표 15] 장소성의 구성 요소	46
[표 16] 가로시설물의 분류와 기능	55
[표 17] 공공시설물의 구성 요소	56
[표 18]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역할	60
[표 19]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전략	61
[표 20] 항상성(Constancy)의 평가지표 설정	63

[표 21] 공공시설물의 상호 소통(Interact)의 역할	64
[표 22] 공공시설물에서의 즉시성과 매체상기성의 적용	66
[표 23] 공공시설물의 분류	71
[표 24] 시설물 현황과 문제점 분석	89
[표 25] 공공시설물 디자인 고려사항	94
[표 26] 설치장소에 적합성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95
[표 27]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95

그 림 목 차

[그림 1] 문화가 반영된 공공환경 디자인 사례	39
[그림 2] 친환경적 공공환경 디자인 사례	41
[그림 3] 디지털 기술이 도시환경에 반영된 사례	43
[그림 4] 공공공간의 특색 있는 이미지 사례	50
[그림 5] 공공공간의 다양한 경험제공 사례	51
[그림 6] 사례연구대상지 위치도	69
[그림 7] 사례연구대상지 주변	70
[그림 8] 교통안내 표지판	72
[그림 9] 도로안내 표지판	73
[그림 10] 공공안내 표지판	74
[그림 11] 공중화장실	75
[그림 12] 공중전화부스	76
[그림 13] 휴지통	77
[그림 14] 휴게공간	78
[그림 15] 자전거 거치대	79
[그림 16] 거리공원	80
[그림 17] 각종 상업 사인물	81
[그림 18] 가로등의 부식된 앵커 볼트	83
[그림 19]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버스정류장	83
[그림 20] 통일감 없는 수목보호대	84

[그림 25] 과도한 디자인의 가드레일	85
[그림 26] 과다 설치된 볼라드	85
[그림 27] 통일감 없는 볼라드	85
[그림 28] 이용자가 거의 없는 공중전화박스	86
[그림 29] 시민공원에 설치된 벤치	87
[그림 30] 보행로에 설치된 벤치	87
[그림 31] 보행로와 조화되지 않는 맨홀	88
[그림 32] 가로수에 가려 보이지 않은 사인물	89
[그림 33] 시설물 관리의 부재	90
[그림 34] 이미지를 헤치는 표지판	91
[그림 35] 계획성 없는 표지판	91
[그림 36] 통일성 없는 가드레일	91

ABSTRACT

The public facility research for the image improvement
of urban setting

Joo, Sul-hee

Advisor : Prof. Hwang, Young-sung
Department of Product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We recently have a high standard of living and perception which demands a lot of proper street furniture and exterior surroundings. But installing street furniture and managing it's level haven't improved at all.

Public space in a city has very important role to provide a space for people to have communication and various exchange. It also has a big deal to connect the space to space of the city. Developed cities in the world improve their quality through having maintenance and design of their public places, and they keep making sustainable ecological cities for their next generations. We can figure three paradigms in their public design. First, there is public environmental design, considering environmental view, and secondly there is also public environmental design but with cultural element. Finally, there is last one with combining digital technology and public environmental design.

With these alterations, we are not considering the public space

as simply a "place" itself, but indicating the public place that can create a new motive from combin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place and human, human and human in the place, human and society, and human and culture. Thus, I understand this is how the public place should be developed from now, and we approach it as an idea, 'public intimacy'. In addition, I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ublic place as an intermediating tool with place and human in relative side, and I analyzed the elements that the public place needs to have for public intimacy into three part : constancy, interact and complexity. Through the study of these relating elements of public place, its direction can be shown for people to feel familiar and consensus.

It a variation of actively processing public environment design, in a study of an ideal's re-arrangement and its direction to advance, and also in a problem of destroying natural environment,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to indicate sustainable direction

국 문 초 록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연구

- 광주 상무신도심 중심으로 -

논문제출자 주 설 희
지도교수 황영성
조선대학교대학원 제품디자인학과

이상적인 도시환경은 현대문명이 가져다주는 기능적 혜택을 누리는 것과 함께 정서적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도시들은 물리적 성장에 치중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획일화와 삭막함을 감소하기 위하여 도시를 장식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요구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고유의 근본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고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조형미를 담아내지 못해 부조화로 혼란스러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도시의 공공공간은 도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각종 활동이 교류되며 도시의 공간과 공간을 잇는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세계의 선진 도시들은 공공공간의 정비와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질을 향상시키고 후세들의 패적한 삶을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공공디자인의 패러다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화적 요소로서의 공공환경디자인이며, 둘째는 환경성을 고려한 공공환경디자인이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공공환경디자인의 결합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중심으로 공공공간을 단순히 장소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인간, 공간에서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문화가 소통하

며 어우러져서 새로운 정신을 창출 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공공공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환경 디자인의 변화 속에서 개념의 재정립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또한 점차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의 문제 속에서 광주광역시의 상무신도심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 개념의 공간과 시설 그리고 공용사용물은 개인의 차원을 떠나 크게는 한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국가 정체성 확립에 가장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한 국가의 선진화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국민적 공공개념의 공간과 시설 그리고 공용사용물에 있어 선진국 수준의 양적 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사용자 중심의 편익성과 안전성 그리고 용이한 사후관리, 심미성 등 선진화된 공공디자인의 질적 개념을 등한시 해왔다.

국민의 편익을 위한 막대한 소요예산이 투여되는 공공시설과 공용사용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하여 이를 통한 정체성 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도시환경(도시가로환경)이라 볼 수 있다. 도시환경은 단순히 이동을 위한 통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간의 만남을 촉진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공공의 장소이다. 이러한 도시환경은 도시의 정보와 인간의 삶이 교류하는 도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환경은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며 도시인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문화적 인프라 차원에서 계획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 관리와 효율적인 공공공간의 사용은 도시 안에서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현대의 수많은 도시들이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공공간의 정비와 앞으로 지향할 방향을 내어 놓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의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양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공간과 그 안의 도구의 역할을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공공공간과 인간, 공간에서의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문화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도시에서 공공공간의 역할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공공공간 디자인 현재위치와 공공공간디자인 패러다임을 통해 공공환경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공공공간의 활성화와 효과적 역할을 위해 구체적 방안과 요소들을 도출한다.

셋째,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시환경에서 공공공간의 중요성과 도시의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공환경디자인의 발전방향 및 지향해야 할 목표를 찾고 도시환경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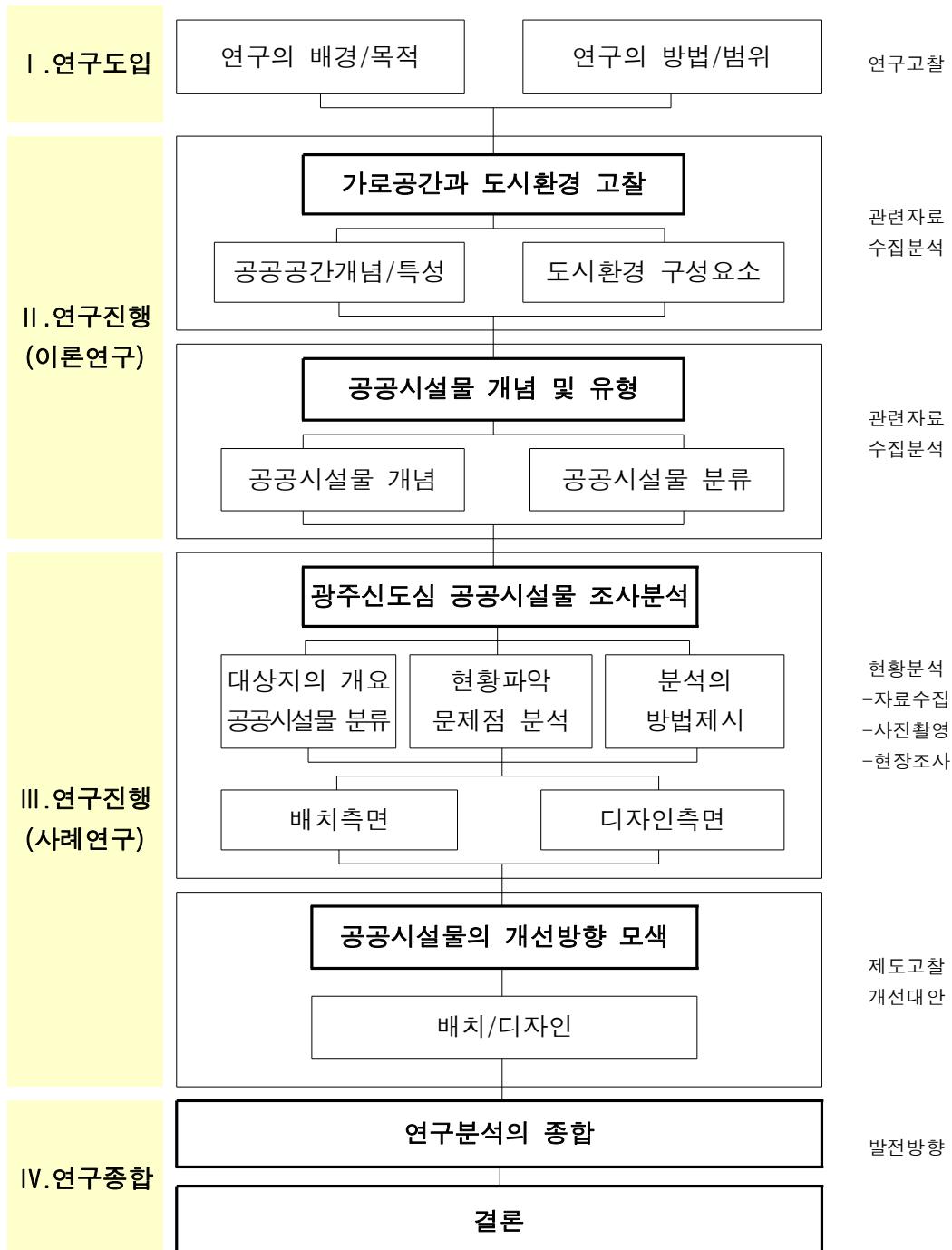
따라서 본 제안 연구에서는 먼저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 범위를 서술한다.

제 2 장은 도시환경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고찰로 도시에서 공공공간의 역할과 위치를 확인하고 디자인적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현 시점과 현재의 패러다임의 연구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공공공간의 시설물과 공간의 이해를 통해 공공개념의 도시환경 이미지개선방향에 대해 정리한다.

제 3 장에서는 공공공간에서의 공공시설물 연구를 통해 시설물이 갖추어야 할 전략을 제시하며,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심의 공공시설물 현황도 분석해 본다.

제 4 장은 위의 내용을 기초로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심의 공공시설물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제 5 장은 위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한다.



[표 1] 연구구성 체계도

제 2 장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와 공공공간의 개념

제 1 절. 도시환경과 공공공간의 이해

1. 도시환경의 개념과 구조적 특성

가. 도시환경의 개념

도시란 인간의 생활필요에 의하여 만들어 놓은 자연스러운 인공 환경으로서 인간 생활의 장(Field of human activity)이며, 기능적인 것과 동시에 미적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간의 형태가 녹아 있는 장소로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정주 공간¹⁾이다. 도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나 한자의 어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는 일정한 영역을 갖는 공간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파는 시를 이루면서 영위되는 인간고유의 생활 방식인 동시에 이렇게 형성된 도시 자체를 가리킨다. 도시라는 용어가 한서 등의 중국 문헌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된 것이며, 중국 문헌에 나타나는 도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상업이 번성한 것을 나타내는 곳을 말한다.

고대의 우리나라와 중국의 도시라는 용어는 오늘날과 같이 도시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도읍지의 시장 혹은 시장이 있어서 번성한 곳을 나타내는 말로써 지금의 도시와는 다른 것이었다. 20세기 초까지 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록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1913년부터는 도시개조가 본격화 되었으며, 이사업은 서국의 영향을 받은 도시 계획 사업이었으나 이때까지도 도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1919년 도시계획법²⁾을

1) 한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안정된 주거공간을 주로 말한다.

비롯하여 건축 기준법, 토지 구획법 등에 기초한 근대적 도시계획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때 일본에서 ‘도시’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21년에 동경도시연구회라는 민간단체가 조직됨에 따라 도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³⁾ 1920년대는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이며, 도시라는 용어와 도시계획이라는 용어가 함께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역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도시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상이하며 국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며, 도시를 지칭하는 용어는 결국 시대적, 지역적 도시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라는 용어의 개념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변천하므로 시대별로 기능 및 구조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그 지역의 지역성과 풍토, 산업 및 사회, 문화 특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에서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내포하며 그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도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역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도시의 개념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변천하므로 시대별 기능 및 구조적 측면에서 혼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도시는 다수의 인간이 모여 활동하는 공간인 도시의 성격은 매우 복잡하며 한 나라의 도시는 그 나라의 윤리관, 경제력, 문화수준, 역사적 배경 및 자연 조건에 따라 그 도시의 기능 규모, 성격, 형태가 다르면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케빈 린치(Kevin Lynch)는 도시의 이미지에서 도시는 다목적인 것이며 이동이 가능한 조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라는 조직은 많은 기능을 갖고 있으며

2)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2년 1월 20일에 제정했으나,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3) 남영우, 서태열(1995), [도시와국토]. 법무사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세워졌으며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만큼, 그 발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으로서 도시를 완전히 짜 맞추거나 특별한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도시를 완전히 짜 맞추거나 특별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고유의 문화나 도시의 기능에 맞는 지역적 개성을 뚜렷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도시 이미지인 것이다. 다음은 도시환경을 형성하는 미적 요소를 살펴본 것이다.

도시의 공간	건물, 가로, 상점가, 광장, 공원, 하천, 강, 호수 등
정원	공용의 정원, 개인의 정원
가로의 장치물	조명등, 벤치, 화분, Sign표지판, 판매대, 문, 시계, 조각 등
도시의 바닥	콘크리트, 벽돌, 아스팔트, 조약돌 등의 포장, 배수구, 맨홀 등
제3차원적 요소	계단, 경사로, 단주, 울타리, 벽 등
물	유수, 낙수, 풀, 물이 있는 조각 등
수목	수목과 자연과의 접촉을 되찾게 해주고 본원적인 인간의 욕구와의 사이에 확고한 정감을 형성한다.
옥상에서의 전망	옥상정원, 발코니 등
코리오 그래피	운동과 율동적인 요소로서 인간의 움직임, 자동차의 움직임, 구름 및 새들의 움직임 등

[표 2]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미의 요소

도시 환경을 이루는 요소들은 상호 융합하며 재구성됨으로서 그 속에서 생활하는 도시민에 정서적이고, 미적이면서 실용적인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

한 구성 요소들이 모여 사람과 도시환경과의 사이에 최대한의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창조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도시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성립되는 지극히 복잡한 복합체이며 역사적으로 보아도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기 때문에 구성 요소를 간단히 규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나. 도시환경의 구조적 특성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의 도시는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수단 그 자체의 기능만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들이 얹혀 있는 거대한 시스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치적, 경제적, 교육의 기능, 문화적, 교통, 주거, 안전,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환경 미학적 기능 등등 도시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과 활동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담아내는 장소인 것이다. 도시공간은 단순한 건축물과 가로의 결합이 아니라 구조물, 지면, 공간, 생태계, 기후 등의 조직체계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면 그들 간에 대한 인간의 요구, 대지의 조건, 도시적 상황 등의 외적 환경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도시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 심리적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민이 경험하게 되는 경험적 환경요소들로 조망, 안정성, 영역성, 독자성, 편의성, 접근성, 사회적 접촉, 이미지 등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가로공간

도시의 가로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공간이 불특정한 성격의 무미건조한 공간이라는 말은 아니다. 도시의 가로공간은 불특정한 사람들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특정한 성격을 가진 그야말로 아이덴티티가 강한 개성적인 곳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도시가 어딜 가나 똑같아 무성격하고 단조롭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가로공간의 특성

들이 잘 만들어지고 드러내지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가로(Street)는 라틴어의 “포장하다”라는 의미의 “strere”로부터 유래된 용어로서, 경계가 정해진 표면 또는 양쪽에 건축물들이 줄지어서 있는 하나의 확장된 지역으로 도시구조의 부분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로경관은 전체적인 도시경관의 틀 속에서 작용하는 부분요소로서 도시경관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그 도시에 대한 시지각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가로경관은 건축물의 높이, 건축후퇴선, 건축에 따른 외부 공간설계, 가로 부속시설 등과 건축물과 건축물과의 관계, 단지와 가로와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가로경관은 도시경관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위환경과 상호 작용하여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고 기능과 미의 합치된 형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도시경관의 속성으로 표현되는 가로경관(Streetscape), 수경(Waterscape), 야경(Nightscape) 등 각 단어의 끝에 쓰이는 「~scape」는 각기 그 특정의 전망이나 경치를 뜻하고 있다.⁴⁾ 즉, 도시경관은 도시의 물리적인 실체로서 좋은 도시의 형태를 인간에게 시지각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표현이며, 도시를 구성하는 사회의 기능이나 경제적 측면 그리고 미적 측면 등을 포함한다는 관점에서 도시경관은 예술임과 동시에 과학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도시경관의 범주에 속하는 가로경관은 이러한 일련의 특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가로의 특성인 경계성, 공유성, 이동성, 그리고 장소성이 부합되어 다양성, 융통성, 그리고 가변성과 적응성의 특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도시라는 환경 안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가로경관은 가로 상에 연속적인 배경을 형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이미지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 도시 구성원이 도시 공간 내에 생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게 된다. 따라서 도시 내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그 사회에 소속하고 있다는 확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가로경관은 물리적인 기능의 추구에 의해 다의성 보다는 단순화되어 간

4) 이규직. [도시경관 구성에 관한 지각적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16권. 1982.7, p41

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조경가 고든 쿨렌(Gorden Cullen)은 ‘하나의 건축물은 건축이지만 두개의 건축물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며, 따라서 두개의 건축물이 나란히 서는 순간에 환경예술이 시작된다. 건축물들 간의 관계와 건축물들 사이의 공간과 같은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⁵⁾라고 하여 건축물 상호간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로란 어떤 의미로는 길고, 비교적 좁으며 에워싸인 공간이다. 공간의 넓이와 건축물의 높이가 만족스러운 시각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그 중 어느 하나가 다소 커야 하는데, 건축물의 높이가 더 클 때에는 에워싸인 느낌이 드나, 건축물 상호간의 결합성은 강하게 작용한다. 이와 반대로 가로의 넓이가 더 클 때에는 탁 트임이나 넓음의 효과는 있지만 통일성이 없다. 또한 가로의 전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혹은 활기찬 도시 생활의 배경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하며, 도시경관 전체에 따른 외부공간설계, 가로 부대시설 등과 건축물과 건축물과의 관계,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가로경관은 도시경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고 기능과 미가 합치된 형태가 되어야 한다.

가로는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장소와 장소를 연결해주는 기능적인 의미로서의 속성이며, 둘째는 가로자체가 일상생활을 수용하는 장소로서의 속성이다.⁶⁾ 즉, 가로는 공공의 장소와 개인의 장소를 연결시키는 동시에 분리시키고, 이를 상호간의 전달을 위한 중간 역할을 한다. 인간행동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위한 매개적인 장소로서의 역할은 그 가로자체가 포함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주변공간의

5) 고든 쿨렌(Gorden Cullen), [Townscape], london, Architectural Press, p133.

6) Jim McClusky, Rood form and Townscape, Architectural Press, 1979, p97. 이에 대하여 N.Schulz(1985, p9)는 이 두 가지 속성을 중심성에 의한 장소(근접관계) 및 구역과 영역(폐합관계), 방향성에 의한 통로(연속관계)의 개념으로 구분하였으며, Team10(A. Smithon:1968, p55)은 설비적인 길과 공간적인 도로로 구분하였다. 또한 Edward Relph(1999, p187)도 가로(street)는 가장자리에 건축물이 나란히 서 있어 형성되는 3차원의 공간으로서, 건축물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길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임을 전제로 한 동물이나 자동차에 의한 사람 및 편의품의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로(road)와는 구별하였다.

성격과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가로의 성격에 따라서 이 두 속성은 적절히 배합되어야 하는데, 통로 성격이 강조되면 동적인 가로가 되고 장소의 속성이 강조되면 정적인 가로가 된다.

구 분	분 류	특 성
기능적측면 (교통)	통과교통의 기능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
	접근 기능	건축물, 가로, 가로내 시설물
	교통전화 기능	승강, 하물의 적재
	주정차 기능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의 주차장
	가로활동 기능	비 교통목적보행(산책, 조깅), 휴식, 놀이, 작업장, 노점, 기타(매매, 전화 등)
장소적측면 (생활환경)	건축물과의 교류 기능	커뮤니티 일반, 시각적 교류, 매매 등
	환경 기능	정보일반, 도시인식, 경관, 녹화, 일조 채광, 통풍, 소음, 진동의 전달
	도시방재 기능	피난, 격리, 방재활동
	공급 기능	에너지, 정보, 상수
	처리 기능	폐기물

[표 3] 도시 가로공간의 기능 및 특성

도시 가로공간은 바로 시민들의 사회생활이 일어나는 곳이다. 주거지의 골목 등의 가로에서는 주부들이나 이웃들이 지나치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린이들이 만나서 노는 곳이다. 도심지, 중심지의 가로공간은 직장인이나 기타 볼일을 위해서 도심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만나고 걸으며 교제를 나누는 곳이다. 이렇게 볼 때 가로공간은 바로 그 도시사회의 생활문화 모습이 투영된 곳 즉, 한 공동체의 가치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는 공공의 공간임을 말한다.

여기서 공공(Public)이라는 단어는 영어권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것, 개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사용을 위

한 공간, 비밀이나 개인적인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두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명사적 의미로서의 'Public'은 일반적인 사람 또는 특별한 분야의 관심에 대하여 고려되어진 사회의 단체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도시에서 공간을 살펴보면 소유관계에 따라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으로 나뉜다. 여기서 공공공간이란 고유지에 고성되는 공간이고 사적공간이란 사유지에 구성되는 개인 또는 사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공성이 있는 공간이란 차원에서 보면 공공공간이면서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제약이 따르는 공간도 있고, 사적 공간이지만 도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도 있다.

Public space에서는 공공공간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일정한 축제과정에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일종의 기능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장소이다.

환경공간

현대의 도시공간은 전반적으로 조형원리에 입각한 미적 형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간은 미와 기능이 형태에 둘러싸인 공간 속에 살게 됨으로서 생활 속의 인간의 의식 및 행동은 필연적으로 모든 인공적인 조형물의 영향을 받게 된다. 카미로 지테(Camillo Sitte)⁷⁾는 그의 저서 「City Planning According to Artistic principles」에서 외부공간에 있어 예술적 특징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둘러싸여 진 실체로서 도시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환경공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환경이란, 알란 카프로(Allan Kaprow)⁸⁾의 정의에 따르면 보는 사람을 둘러싸며 빛·소리·색채 등을 포함한 모든 소재로 이

7) 카미로 지테(Camillo Sitte, 1843–1903) : 도시미학 이론의 주창자 카미로 지테 – 도시미학주의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이론가이다. 도시의 구성과 계획을 미학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의 논리는 현대 도시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8) 알란 카프로(Allan Kaprow, 1927–) : 미국 현대예술의 조직자. 미학을 전공하였으며, 해프닝(Happening)의 창시자이다.

루어진 공간 전체를 채우는 예술 형식이라고 한다. 공간이란, 유기체와 환경과의 산물이며 이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지각된 우주의 조직화와 활동 그것의 조직화를 따로 분리하기란 불가능하다. 즉, 환경공간이란 유기체와 인간과의 상호작용과 환경으로 인해 형성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현대의 공간개념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더욱 변천하게 된다.

도시경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골격이 되는 것은 자연환경이며, 자연환경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이 생태적 원리이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연을 기본으로 한 도시경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 가로환경은 단기적인 경제적 논리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인류 생존이 가능하도록 친자연적, 생태적인 방향으로 계획되어져야 한다.⁹⁾ 각 지역이 지닌 자연적·인공적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 지역밖에 없는 특유의 분위기를 창출해 내고 지역의 개성을 발견해 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개성창출에도 힘 쓸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로와 가로시스템이 창출하는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Open Space)¹⁰⁾, 랜드마크(Landmark)¹¹⁾를 비롯한 도시경관구조내의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구성해야한다. 명확하고 간략한 도시 가로경관구조는 주민과 방문객에게 어떻게 도시가 조직되어 있는지를 인식 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도시 내의 방향성과 접근성을 제공하며, 또한 그들의 육체적·정신적·감성적 감각을 증진시켜서 안락하고쾌적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기본적인 가로와 블록패턴, 주 보행로, 주 간선도로, 교차로 그리고 도시 이미지 축 상에서의 신 건축물은 세심하게 디자인되어서 현재건축의 적극적인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서 각 블록과 가로의 특성을 살려야 한

9) 현대미술 용어사전. 열화당 미술문고 17, p73

10)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 <건설> 도시계획에서, 사람들에게 레크리에이션 활동 목적이나 마음의 편안함을 줄 목적으로 설치한 공터나 녹지 따위의 공간.

11) 랜드마크(Landmark) : 1. 경계표 2. 유효(陸標) 3.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건조물 4. 현저한 [획기적인] 사건. 또는 표지물이라고도 한다.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운 특이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 특이성은 형태나 배경과의 대비성, 공간적 배치의 우수성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배경과의 대비성은 색채·역사성·청결감·디자인의 특수성, 움직임·음향 등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다.¹²⁾ 또한, 동선위계 내 가로의 다양한 역할, 도시 오픈페이스의 위치와 성격 등은 주로 공공환경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공공정책과 투자결정을 통해서 책임있게 다루어져 연속성과 일관성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로시설물은 건축물과 가로수를 제외한 가로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하는데 가레트 에크보(G.Eckbo)는 이를 공공시설물이라 부르면서 도시 내의 중요한 지각요소¹³⁾로 보고 있다. 이처럼 가로시설물은 도시민의 생활 활동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접촉을 가지며, 가로공간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다. 따라서 가로시설물은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디자인 되어야 할 것이다. 가로시설물의 구성 원칙은 가로의 통일성과 독자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야 하며, 통일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모듈화로 통합설계를 하고,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스케일을 선택하여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을 추구한다. 각 시설요소는 설치목적에 합당하고 개성미를 지니되, 혼돈감 없이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단순화된 디자인을 사용하여 도시가로경관에 통일성과 일관성, 방향성을 부여한다.

도시 환경속의 사인(Sign)

인간은 자연환경, 인공환경, 행동환경의 영역 속에 놓여있는데 이 인간과 환경의 구조 속에 사인시스템과의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인 시스템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로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인시스템은 도시환경이라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시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환경적 디자인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12) 이광노(1928-) : 가로공간의 구성요소로서 가로와 가로 건축물에 관한 소고, 대한건축학회 발표 논문집 제12권 제2호, 1992 p242.

13) 가레트 에크보(Garrett Eckbo), the Landscape We see, MX Graw Hill, 1969 p112.

14) 명승수(1953-) : 현대 디자인학의 지평. 1999. 디자인하우스 p15.

현대사회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와 환경, 사람들 사이의 무수한 상호작용이 다양한 매개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인간은 정보의 대부분을 시각을 통하여 받아들이므로¹⁵⁾ 시각에 의한 의사소통 수단인 사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인은 뜻을 전달하는 표지라는 뜻으로 일상적으로 기호, 신호를 전달 매체로 하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즉, 사인은 의사소통의 기본단위로 의미와 내용을 가진 기호이며 시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인간이 환경을 이해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 전달 수단이다. 사인의 개념을 보다 넓게 정의하며 정보계 도구라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리키는 표시, 또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개별적 사인들이 개성을 갖고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C.I와 연계되어 통합적이고 획일적으로 제작되는 사인을 사인시스템이라 하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계획하여 설치하는 것이 사인시스템의 계획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인은 의사소통과 시각의 장애를 초래하므로, 사인은 기능이 명확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야 하며 적재적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야 한다.

환경요소로서의 사인은 단순히 외부의 공간에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어떠한 현상과의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서 정보화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도시의 환경 속에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의 편리함과 환경의 질을 높이는 수단을 뜻한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로서의 사인은 근래의 생성된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집단생활을 영위하고 도시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해 왔으며 자연이나 인공의 표식을 이용하여 집단의 영역이나 이정표 등으로 사용한 영국의 스톤헨지(Stonehenge)¹⁶⁾나 고인돌¹⁷⁾등이 그 예이다. 사인은 반드시 어떤 공간의 환경 속

15) 로버트 뷔르의 통계에 의하면 인간은 83%를 시각으로 인지한다.

16) 스톤헨지(Stonehenge) : 영국 월트셔주(州) 솔즈베리평원에 있는 고대의 거석기념물(巨石記念物). 영국의 사계절을 알리는 거석문화 유적 B.C 1800~1400년경.

17) 고인돌 (支石墓(지석묘), dolmen) 큰 돌을 몇 개 둘러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덮어 놓은 선사시대의 무덤. 북방식과 남방식이 있다. 지석묘(支石墓)라고도 부른다. 북유럽·서유럽·지중해

에서 작용하며 그 사회성이나 기능상의 요구로부터 시스템이 구축되어진다. 그러나 이 환경도 시대의 변화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서 일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환경 공간을 포괄하는 도시 환경도 국가나 지역, 더욱이 문화권이라고 하는 보다 넓은 문화, 전통, 풍토 등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멸되어 가는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복잡 다양한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한 환경 정보체계로서의 사인계획이 요구된다 하겠다. 기능과 목적을 위한 새로운 도시의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활용되어지는 사인은 정보 발신 장치로서 인간에게 익숙해져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의미하는 범위는 대단히 넓혀지고 있다. 사인의 목적은 길안내이지만 사인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환경을 전달하며 도시를 특화시킨다.

보다 나은 시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인이 이용될 때 도시환경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들과 함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 도시기능의 고밀화, 고속화 등의 과학 기술의 진보에 의해 그 구조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지역의 풍토나 개성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사인은 사람들의 생활환경이나 행동을 쾌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환경을 쾌하게 느끼게 하는 매개체로서 전달 감각과 미적 감각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조심성이 요구된다. 사인은 환경디자인의 새로운 요소로 미적 환경 이미지 형성들이 새롭게 재평가 되고 있으며 또한, 공공공간에 환경조형물이 설치되어 주변공간과의 조화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환경조형물은 자연환경과는 달리 도시인에게 공간, 색채, 재질감에 대한 지각경험을 주기도 하고 주위환경과 어울리면서 분위기를 통일하고 변화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조형물만이 환경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주위의 공간을 점유하며 주변의 모든 대상을 조화 있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

연안 · 북아프리카 · 서남아시아 일대의 신석기 시대 묘제로 분포하나, 한국의 고인돌과 직접적인 문화적 관계는 없는 듯하다. 중국 랴오닝성과 산둥반도 및 일본규슈(九州)에도 분포하나, 한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미미하다.

은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상호 협력 하에 좋은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¹⁸⁾ 시대의 도시환경은 단조로움과 비인간성의 극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표정과 색깔이 있는 도시, 친근감을 주며 인간적인 도시, 어딘가 여유와 여백이 있는 도시 역사적 맥락을 느낄 수 있는 개성이 있는 도시 그리고 장소성이 풍부한 도시를 지향한다.¹⁹⁾ 도시를 형성함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대중의 역할은 장소의 사용자이며 소유자인 시민들이 그 장소에서 경험하게 되는 제반의 행위로서 환경 조형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도시공간은 무의식 속에 인간에게 인식되는 것이며, 바람직한 공간이란 서로를 돋보이게 하면서 상호협력 관계를 지니며 인간에게 미적 아름다움을 선사하면서 정서를 순화시키는 것이다.

도시환경에 있어서 사인은 사인 그 자체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의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도시환경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미적, 조형적, 환경 친화적인 정서적인 충족함을 아울러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창출한다는 의식으로 제작할 때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미적 조형요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공간의 개념과 역할

가. 공공공간의 개념

한 도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는 도시의 공공성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누구나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자신이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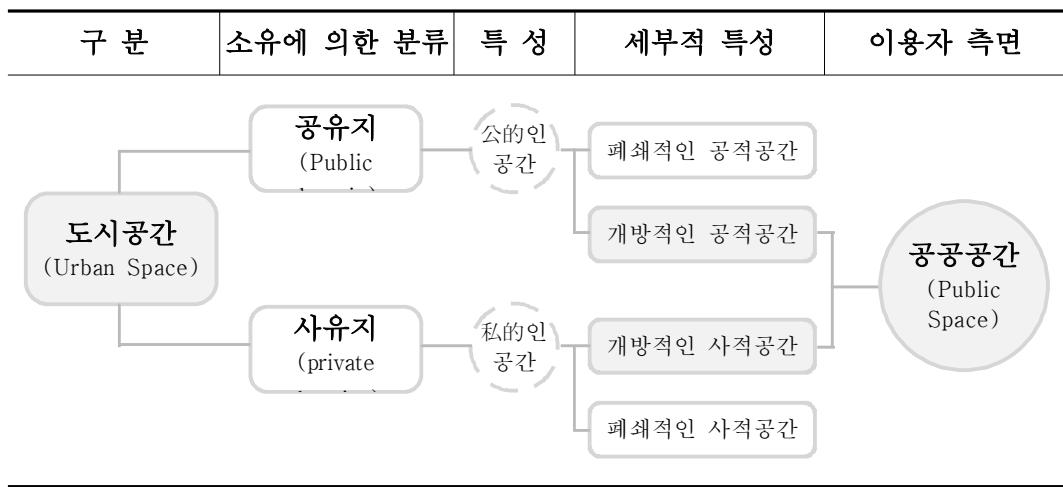
18)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 이 운동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여성운동·흑인 민권운동·제3세계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전위예술, 그리고 해체(Deconstruction) 혹은 후기구조주의 사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점검과 반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19) 임승빈(1998) : 조경이 만드는 도시. 서울대학교 출판부, p241

한 장소를 쾌적하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도시가 공공을 배려하고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것이 도시의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 공공(Public)의 정의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풀이 되고 있다.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것, 개인이 아닌 공중, 폐쇄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쓰이며 사전적 의미로 ‘공공(公共)’은 ‘사회일반이나 공중(公衆)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공공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공공성은 성질에 관련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전적 의미에서도 공공성을 ‘사회일반이나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 따위를 미치는 성질’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처럼 공공성은 인간사회에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 방식 중 한 가지이다. 공공성은 보편성, 대중성, 일반성과 관계가 있으며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에 관계가 있다.

도시의 공공공간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공공의 성질들이 함축되어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공공성은 대중 즉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사적인 요구에 의해서 구획되어지지 않은 모두를 위한 장소의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과 관련해서 도시의 공공공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보려면 우선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특징과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소유권이 다르다는 것이다. 소유권이 개인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공간은 사유지(私有地)로 분류되고 그와 반대로 공공기관에 속해 있으면 공유지(公有地)로 분류된다. 하지만 개방 공간 즉 공공성의 개념에서 이 두 공간을 바라보면 더욱 세부적으로 공간이 나뉘게 된다. 공유지 즉, 공적으로 쓰이는 공간이어도 대중에게 개방적이지 않은 공간이 있다. 반면에 사유지이지만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도 있다. 다시 말해 공유지라고 해서 모두 공공공간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우며 사유지가 반드시 공공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공간은 공간 소유의 측면보다는 공간이 담고 있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Public Space에서

공공공간을 정의한 것을 보면 이 같은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공공공간은 사람들 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일정한 축제과정에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일종의 기능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장소이다. 여기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개인과 사람들의 관계는 공중(The Public)에 대한 논의로, 일상적인 생활이나 일정한 축제과정은 사람들이 물리적 환경을 점유하는 방식의 일종이며 이는 공적생활(Public Life)에 대한 논의로 각각 귀결된다. 따라서 공중(The Public)과 공적생활(Public Life)의 양자 사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공간 형태 또한 이러한 틀 속에서 생성, 변화되어 간다.²⁰⁾



[표 4] 도시 공공 공간의 구성

나. 매개공간의 공공공간

도시의 공공공간은 도시 안의 다양한 생활 방식과 각기 다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문화와 삶의 수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공간은 그 도시의 이미지이며 사람들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렇게

20) 대한건축학회지 [건축] 제41권 제1호(1999)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재인용

공공공간에서 인간과 그들의 문화와 그것을 둘러싼 공간 속 장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도시 안의 공공공간은 끊임없는 소통의 공간이며 매개공간인 것이다. 공공공간을 도시 구성의 매개체라 한다면 공공공간을 인식하는 기준을 ‘장(場)’으로 보는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공간과 인간 지각과 관련된 ‘심리적 개념’의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5] 도시 공공공간의 역할

(1) 심리적 매개체로서의 공공공간

소통의 공간

과거 사람들은 저마다 생존을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다. 도시는 점점 고밀화 되고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개인의 공간은 침해되었다. 또한 효과적 통제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개개인의 의견은 묻혔으며 획일화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 수많은 사람은 궁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서 디지털의 발달은 실제적 접촉을 통해 공동생활을 유지하던 사람들을 점점 혼자의 공간으로 밀어 넣고 있다. 도시생활에서 공공공간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간이며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공공공간의 역할은 도시의 삭막한 삶에 새

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도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공공공간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이외에도 문화, 사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나의 도시는 ‘시간이 축적된 역사의 장’이다. 각각의 도시는 오랜 기간 그 도시의 문화와 삶이 더해져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 도시의 공간이 새롭게 디자인 되고 변화되어가도 그 도시만의 방식과 패턴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도시의 공간을 보면서 과거와의 연속성을 느끼게 된다. 공공공간은 도시의 이미지와 개성이 그대로 반영된 공간으로 그 곳에서는 다른 도시와 다른 저마다의 특징과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생성의 공간

고대 그리스의 도시, 즉 폴리스에서 ‘거리의 사람들이 모이는’ 아고라(agora)²¹⁾라는 공간이 있었으며, 유럽에는 ‘무언가를 논하기 위해 모이는’ 플라자(Plaza)²²⁾와 포럼(Forum)²³⁾이 있었다. 파리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웃음과 대화와 논쟁을 이끌어내며 깊은 사색과 철학적 고뇌, 그리고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탄생시킨 공간, 카페가 있었다.²⁴⁾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의 공공공간은 사람들이 개별 공간에서 이루지 못하는 공유와 상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상호작용 속에 도시의 이미지와 개성을 결정지을 만한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고 사람들의 교류는 도시를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21) 아고라(agora) :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으로 민회(民會)나 재판, 상업, 사교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공적인 의사소통이나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말로 널리 사용된다.

22) 플라자(Plaza) : 대광장, (특히 스페인 도시의) 네거리.

23) 포럼(Forum) : 고대 로마 도시의 공공광장(公共廣場).

24) 고성종, 고필종, 도시환경과 개방공간 디자인, 미진사(1999) p45.

(2) 물리적 매개체로서의 공공공간

공공공간의 전이성

공공공간은 개인이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지은 공간 이외의 공간을 지칭한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누구나 자신만의 개별 공간을 갖고 있고 공공공간은 이런 개별, 개별의 공간 사이에 놓여있는 연결점인 것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사이’의 개념은 전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공간에서 ‘사이’라 함은 그 곳에 영구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기 위한 장소적 개념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변화와 이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하나의 현상과 장소로부터 다른 현상과 장소로 경과 및 이동, 하나의 단계·형태·양식에서 시간과 경과에 따라 다른 단계·형태·양식으로 발전 및 움직임, 연결성을 갖고 변화하는 중간으로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매개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공간은 개별 공간 사이의 전이 이외에도 도심공간과 자연환경사이 경계에서 전이적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공원이나, 수변공간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거리와 같은 이동을 통한 공공공간은 도시의 지점과 지점, 한 도시와 다른 도시, 도시와 외보 공간의 이동을 돋는 전이 공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광장은 주요 건물의 주변이나 주요 공간 사이에 건설함으로서 광장 이외의 공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과 공간을 이용하기 전, 이용한 후 필요한 부수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광장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은 기존의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좀 더 풍요롭게 공간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공간의 유형

공공공간은 형성과정에 따라 그 기능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형성과

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의도성’이다. 첫째는 의도적 계획이 없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공공간으로 자리 잡은 경우이다. 둘째는 의도된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을 대개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건설된다. 셋째는 진화(Evolution)되거나, 변용(Modification)된 공간이다. 공간 초기의 성격과 다르게 이용자의 요구나 주변의 환경에 의해 공공공간이 된 경우를 말한다.

형성과정	공공공간의 유형	특성
의도적 계획이 없는 공간	거리의 모퉁이, 큰 건물의 진입계단, 미개발지	특정 이용자들의 만남, 휴식, 집회 등이 이루어지면서 공공 공간 형성
의도적으로 계획된 공간	기념광장, 공원, 몰(Mall)	건축가나 도시 계획가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건설
진화, 변용된 공간	시설변경을 한 개발지	미개발지에 편의시설 건설 등으로 발생, 모든 공공공간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됨

[표 6] 형성과정에 따른 공공공간 분류

공공공간의 유형을 분류하는 다른 기준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류로 Public Space에서 정리한 유형을 들 수 있다.

유형	특성
공원 (Public Parks)	공공/중앙공원 (Public/Central Park)
	도심공원 (Downtown Park)
	공유지 (Commons)

유형		특성
공원 (Public Parks)	근린공원 (Neighborhood Park)	주거환경으로 개발된 외부 공간; 도시의 외부 공간의 구획으로서 공적으로, 또는 새로운 주거 개발의 일부 개발·관리; 운동장, 운동시설 등을 포함이기도 함
	소공원 (Mini/Vest-Pocket Park)	건물들은 면한 작은 도시 공원; 분수나 물의 형을 포함
광장 (Squares and Plazas)	중앙광장 (Center Square)	광장이나 사거리; 대체로 도시 중심에 역사적 개발의 부분; 거리의 만남 장소로서 공식적으로 계획되거나 존자하기도; 대부분 공식적으로 개발·관리
	법인광장 (Corporate Plaza)	새로운 사무실, 상업건물의 일부로서 계획된 광장, 종종 도심에 위치하였으나 교외에 공원개발의 증가 추세; 건물 소유주나 경영자에 의한 건설, 운영; 일부는 공적으로 개발, 그러나 주로 사적 개발
거리 (Streets)	인도 (Pedestrian sidewalks)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도시의 부분, 대부분 목적지를 연결시키기 위해 개발되거나 설립되는 갓길이나 통로
	산책로 (Pedestrian Mall)	자동차 통행이 금지된 도로; 수목과 벤치로 보행의 쾌적성 제공;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주도로를 따라 위치
	통행로 (Transit Mall)	도심 지역으로 접근을 위해 활용된 통로의 개발; 전통적인 보행자도로를 버스나 간소한 철로로 대체
	교통 통제로 (Traffic Restricted Streets)	공공의 외부공간으로 사용되는 거리; 차량의 제한에는 보도의 개선이나 도로의 확장, 조경 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철로 (Town Trails)	통합된 도시 철로로 도시의 부분들을 연결; 환경적 배움을 위한 설정으로 계획된 거리와 외부공간의 사용; 일부의 계획된 철로들
기념비 (memorial)		지역이나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사람들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장소
시장 (Markets)	벼룩시장 (Farmer's Markets)	농부들이 시장이나 벼룩시장으로 사용하는 외부 공간이나 거리; 공원이나 도심의 거리, 부차장 등의 기존 공간에서 대체로 일시적이거나 단기 일정한 기간 동안 열리는 시장

유형		특성
운동장 (Playground)	운동장 (Playgrounds)	근린지역에 위치한 놀이지역; 종종 미끄럼틀이나 그네와 같은 전통적인 놀이시설을 포함; 때때로 벤치와 같은 어른들을 위한 시설 포함; 어드벤처 플레이 그라운드와 같은 혁신적인 계획 포함 가능
	교정 (Schoolyard)	놀이지역으로서 교정; 때로는 환경적 배움을 위한 장소 또는 공동체 사용 공간으로서 개발
공동체 공간 (Community Open Spaces)	공동체 정원/공원 (Community Garden/Park)	거주민들에 의해 공지에서 계획·개발·관리되는 근린 공간; 전망정원, 놀이지역, 공동체 정원을 포함할 수도; 종종 사유의 땅에 개발; 도시의 외부 공간 체계의 일부라는 공식적인 시작으로 볼 수 없음; 주거, 상업 개발과 같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취약점
녹지도로 (Greenways and parkways)	복합 여가지 (interconnected Recreational and Natural Areas)	보행도로나 자전거 통로로 연결된 자연 지역과 여가 공간
백화점 (Atrium/Indoor Marketplace)	아뜨리움 (Atrium)	내부의 아뜨리움 공간으로 개발된 사적이 고안; 잠글 수 있는 내부의 광장 또는 보행자 거리; 외부 공간 체계의 일부로서 많은 도시에서 채택; 새로운 사무실, 상업 건물의 일부로서 사적으로 개발·관리
	상가 (Market/Downtown Shopping Center)	내부의 사적인 구매지역, 일반적으로 독립적 또는 이전 건물의 보수; 내부 또는 외부 공간을 모두 포함하기도; 때론 ‘축제의 시장’이라 부르기도; 새로운 사무실, 상업건물의 일부로서 사적으로 개발·관리
설비시설 (Found/Neighborhood Spaces)	설비시설 (Found Spaces/Everyday Open Spaces)	길모퉁이처럼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외부 공간; 건물이 되는 과정으로 사람들이 점유하고 이용; 또한 비어있는 대지나 미래의 건축지역을 포함하여 인근의 공지나 비개발 지역; 종종 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지역 주민에 의해 사용
물가 (Waterfronts)	물가 (Waterfronts, Harbors, Beaches, Riverfront, Piers, Lakefronts)	도시에서 물길을 따라 존재하는 외부 공간; 물가 지역으로 공적 접근 증가; 물가 공원의 개발

[표 7] 현대도시의 공공공간의 유형과 특성²⁵⁾

25) 임숙현, 도심의 공공공간으로서의 보행자전용가로 모형사례 연구, 이화여대, 2002, p11-12, 재인용(원문: Public Space, p50-84)

제 2 절. 도시환경과 공공공간의 디자인적 관념

1. 공공환경디자인의 이해

가. 공공환경디자인의 개념

(1) 공공환경디자인의 개념

개인적 삶의 질이 높아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제 개인의 공간 이외 주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공공환경에 대한 디자인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공공환경디자인이란 공공공간의 시설, 제도, 장치, 공간에 관련된 모든 계획과 디자인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의 도시화는 포괄적 측면에서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도시 전반의 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공공공간의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관의 아름다움이 결여된 환경은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고 찾게 되는 공간이 아닌 공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환경디자인은 단지 미적 측면에서 외관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의 구축,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인간 편리성 추구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환경의 경관디자인 측면은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 왔으며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어쩌면 미(美)에 대한 추구는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늘 따라다니던 욕구라고 보았을 때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단지 삶과 직결된 도시에서의 생활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폭 넓은 배려심을 그동안은 찾기 힘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공공환경을 도시의 다양한 사회요소의 결합체로서 인식하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려는 인식은 아직 부족하며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도시가 점차 발달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인류의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지에

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며 자연으로의 희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류에 도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도시 안에서의 자연과의 공존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생각할 때 도시 전반의 공공환경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 환경디자인의 유형

환경디자인에서 환경은 인공환경을 의미하며 건설환경 또는 인위적 환경으로 규정된다. 즉, 인공환경은 도시계획²⁶⁾ 및 디자인, 조경; 단지계획²⁷⁾ 및 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및 디자인, 환경제품 디자인 등의 다양한 건설 환경분야로 규정²⁸⁾되고 있으며 인위적인 환경은 도시, 커뮤니티, 건축, 실내, 실내제품 등으로 구분된다.²⁹⁾ 또한 환경디자인은 특정분야를 자칭하는 단어와 결합함으로써 여러 세부적인 학문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 환경디자인, 건축 환경디자인, 공공 환경디자인, 실내 환경디자인, 색채 환경디자인, 캠퍼스 환경디자인 등 그것이다. 또한 특정 공간을 지칭하는 단어와 결합되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 환경디자인, 특정시설 환경디자인, 특정센터 환경디자인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분야들에서는 대체로 각자의 주요 관점에 따라 환경디자인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한다. 즉, 도시 환경디자인 관점의 경우, 환경이라는 말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도시를 비롯한 인공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사용된다.³⁰⁾ 이 외에도 환경디자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을 통하여 환경디자인에서 다루어지는 환경, 즉 인공환경의 실제적인 유형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때 환경은 구체적인 공간의 이

26) 도시계획(都市計劃) : 도시 생활에 필요한 교통·주택·위생·보안·행정 따위에 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

27) 단지계획(團地計劃) : 일정한 규모의 점유된 토지 위에 주거(住居), 상업, 생산 유통, 교육 연구 활동 따위를 수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28) 연세대학교 2000.4

29) 이연숙 편역, (유니버설 디자인) 태림문화사, 1999

30) 고성종, 고필종 (거리 환경디자인) 1992, p50

름들로 명명된다. 환경디자인의 최근 및 미래 경향을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도시 공간, 공원, 건물 및 조경, 레크레이션 조경, 토목공학 및 개간지, 랜드아트 (Land Art)³¹⁾ 등으로 나뉜다.³²⁾ 작품 사례들로 환경디자인을 소개하는 경우, 환경은 주택을 다루는 주거 건축, 극장이나 공원 등의 레크레이션 공간, 학교시설 등의 기관 건축, 상업 및 산업 건축 등으로 구분된다.³³⁾ 이상을 통하여 구체적인 환경디자인 사례들은 다양한 범위 및 공간 그리고 제품에 이르는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중 분 류	소 분 류(또는 예)
유엔환경 개발기구 (UNEP)	자연환경	대기/대양/물/암석권/육상생태계
	인간환경	인구/주거/건강/생물계/산업/에너지/운송/관광/ 환경교육 및 홍보/ 평화와 안전
환경정책 기본법	자연환경	생물환경/무생물환경
	생활환경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백우현(1996) 윤정숙(1995)		자연환경(자연계)
		인공환경(조형계)
		사회환경(사회계)
옥치상 등 (1996)	자연환경	이화학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
	사회환경	인위적 환경
		사회적 환경
I. Altman (1980)	자연환경	공간적/지리적 특성/환경적조건/동식물군
	건조환경	인간활동의 결과/자연환경의 수정
Sonnefeld (1972)		지리적 환경
		조작적 환경
		인지적 환경
		행태적 환경

31) 랜드아트(Land Art) : “Earth Art”라고도 하며 대지미술로 번역된다. 지형, 경관 등을 소재로 한 공간 예술이다. 미니멀 아트(minimal art)의 영향 아래 ‘물질’로서의 예술을 부정하려는 경향과 반문명적인 문화현상이 뒤섞여 생겨난 미술 경향.

32) Cerver, Francisco A. 2000

33) Cottom-Winslow, Margaret 1995, 1990

구 분	중 분 류	소 분 류(또는 예)
Craig. R. Humphrey 등 (1981)	자연적 환경	야생지/해양/광물매장지/토양생산성 등
	수정된 환경	오염/변경된 풍경/에너지 추출 등
	인위적 환경	주택/고속도로/공항 등
	사회적 환경	가족계획정책/원자력논쟁/환경에 대한 태도 등
J.D. Proteous (1976)	현상적 환경	인간적 환경
		물리적 환경
	개인적 환경	행태적 환경
		경험적 환경
	맥락적 환경	생활 수준
		생애 주기
		생활 방식

[표 8] 일반적인 환경의 유형³⁴⁾

이상에서 고찰한 환경디자인에서 환경은 공통적으로 인공 환경을 뜻하며, 기존의 연구들은 인공환경을 물리적 인공환경과 구분하지 않은 채 사회환경, 사회적 환경, 삶의 질 여건, 인간환경, 인위적 환경, 사회, 경제적 환경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인공환경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 자신의 삶의 존재양식을 구속하는 존재물로 인식하고 있다. 인공환경의 요소로서는 인구, 취락, 주거, 정치, 경제, 교육, 산업, 문화재 등의 시설물, 에너지, 운송, 관광, 교통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사회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은 모두 인공 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인간의 삶의 핵심적 차원들이 인공 환경의 범주가 되고, 각 범주의 구성요소가 결국 인공 환경의 구체적인 지표가 된다.

34) 강인호, 한필원 2009, p17-18 / 박지연.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3.

유 형	내 용
주거 환경디자인	단독주택, 집합주택, 별장주택
레크리에이션 환경디자인	스포츠시설, 극장시설, 공원시설
기관 환경디자인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관청시설, 종교시설
상업 환경디자인	상점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금융시설, 호텔시설, 교통시설

[표 9] 환경디자인 작품사례의 유형 종합

또한 도시에서 제품에 이르는 관점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실제 디자인 사례의 경우에는 다양한 공간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요즘 중요시하는 친 자연적인 요소와 맞물려 건물과 조경이,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이 통합되어 실질적으로는 환경이 단순히 도시, 조경, 건축 등과 같이 별개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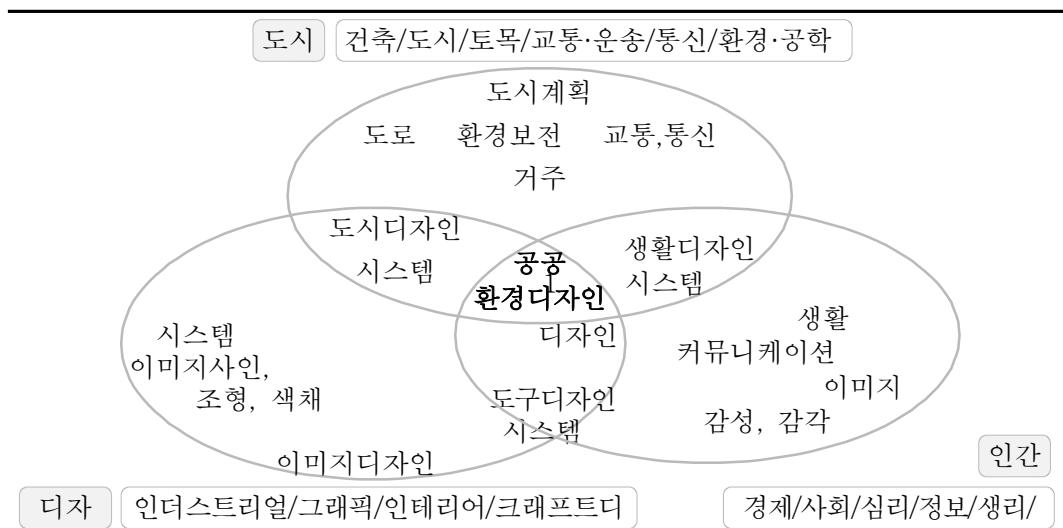
유 형	내 용
도시 환경디자인	도시계획 및 디자인
단지 환경디자인	단지계획 및 디자인, 커뮤니티
건축 환경디자인	건축, 단지계획 및 디자인
실내 환경디자인	실내건축 및 디자인, 실내제품 또는 환경제품디자인
조경 환경디자인	조경

[표 10] 환경디자인에서 환경의 유형 종합

이상의 내용을 환경의 유형분류라는 종합적인 견지에서 정리한 것이 [표 9]와 구체적인 디자인 작품사례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 [표 8]이다.

(3) 공공환경디자인의 영역

도시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얹혀서 이루어 진 곳이다. 미국의 도시 설계가 케빈 린치는 그의 저서 <도시의 이미지>에서 도시 환경의 이미지를 주체성(Identity), 구조(Structure), 의미(Meaning)로 나누고 있다. 이것은 각각 요소가 독립적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서로 어울려 공존할 때 개성(Identity)과 흐적성(Amenity)이 확보되는 도시환경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³⁵⁾ 이런 도시의 이미지는 다음 [표 10]의 도시의 영역에도 잘 나타나 있다. 위의 요소 중 주체성은 그 도시 고유의 이미지 형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문화, 생활상 등 물리적 요소가 아닌 정신적 도시 구성 요소를 뜻한다. 이 요소는 도시의 분위기를 결정지으며 도시가 미래에 발전해 나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구조는 도로, 교통, 통신, 토목 등 도시 전반에 걸친 모든 제반을 의미하며 각종 장치나 시설물 등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환경과 하드웨어적 환경에 인간이 생활하면서 도시에는 의미가 부여되고 도시로서의 기능이 완성되는 것이다.



[표 11] 공공환경디자인의 관련영역³⁶⁾

35) 윤영주, 도시환경에 있어 가로공간의 슈퍼그래픽에 관한 연구, 계명대, 1999, p5

36) 이진민, 공공환경디자인 論, 중앙 M&B(1998), p11.

공공환경디자인은 이러한 모든 영역의 가운데 위치하여 도시 환경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생활 시스템, 도시의 시스템과 이미지 향상, 그리고 그런 도시를 바라보는 인간의 감성적, 시각적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그 영역은 환경, 경관 디자인에서부터 인간과 관련된 심리의 범위까지 광범위 하며 복합적이다.

나. 공공환경디자인의 필요성

브라질의 ‘꾸리찌바’, 프랑스의 ‘라 빌레트’ 와 ‘라데팡스’의 공통점은 도시의 이미지가 거대한 브랜드가 되었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반드시 어떠한 사무를 보기위해 또는 도시의 고대 유적이나 화려한 축제를 보기위해 사람들이 그 도시를 들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이미지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많은 주변 도시들은 이들의 도시 이미지를 자신의 도시에도 반영하기 위해 모여들고, 여행객들은 이들 도시의 길거리, 공원, 가로 시설물, 건물 앞의 조그만 컴퓨터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고 그들의 진보적이며 창조적인 생각을 보기위해 여행을 온다.

현재 많은 도시는 첨단의 기술력과 빠른 정보력으로 어느 때 보다 진화된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얼굴을 만드는 것, 도시의 특성을 개발하는 것에는 소홀하다. 도시는 점차 분화되고 더 많은 양적 확대가 지속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통합하고 미래에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중심이 없다면 황량한 구조물들의 집합체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역할의 중심에 공공환경 디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환경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은 단지 미학적인 측면에서 끝난다면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민 즉 공공의 참여와 요구가 있어야 하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조직체에 대한 분석과 공공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외관 디자인의 차원을 넘어선 깊은 대중들의 삶을 디자인 하는 것이다. 도시

의 시설물과 환경, 이것을 이용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도시 공동체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에 큰 부분을 차지 할 것이며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다.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현 시점

2004년 문화관광부가 공공디자인을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선정하였을 만큼 우리나라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수준은 도시의 크기와 기술의 발전에 비해 매우 미비하였다. 도시의 팽창과 도로나, 건물의 건설 등 도시의 확대에 관심을 가지면서 도시안의 인간에 대한 배려는 점점 소멸되어 갔다. 도시의 생상성과 경제력 향상을 위한 대량생산과 획일화된 생활은 도시 속의 대중을 개개인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기 보다는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쾌적한 삶에 대한 권리를 앗아갔다. 하지만 세계 도시가 그러하듯 우리나라도 인간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공공디자인 방향의 문제점이라면 이미 공공디자인이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모습을 따라하려는 과정에서 인간의 편의와 존엄을 중시하는 공공디자인의 핵심을 배제한 체 외관만 따라 하기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공해로 남겨졌다. 또한 이를 관리하고 계획하는 공공기관의 디자인과 관련된 제도나 이론적 배경이 전무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공공환경의 유지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오랜 시행착오 끝에 사람들은 공공환경디자인의 방향을 인간 중심으로 잡아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시스템 디자인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올바른 방향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각 도시의 개성과 문화를 개발하고 각자의 도시를 상품화 하려는 움직임과도 결합되어 공공환경디자인에서 도시만의 이미지를 찾는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색 없이 똑같은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노력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도시 이미지 구축 작업은 소소한 디자인 작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 전체의 통합적 이미지는 슬로건이나, 캐릭터 작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환경디자인 전반에 도시 고유의 문화를 배려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의 공공환경디자인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점차 고조되고 있는 관심과 노력은 세계에서 대표될 수 있는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데 가능성 을 보이고 있다.

2. 공공환경디자인의 패러다임 연구

가. 공공환경디자인과 문화

(1) 문화의 일반적 개념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대표적인 사전류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관한 고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어대사전”에서 문화(文化, Culture)는 첫 번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했으며 두 번째, 권력이나 형벌보다는 문덕(文德)으로 백성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셋째로 학문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지(人智)가 깨어 밝게 되는 것. 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EnCyber & EnCyber.com)”에는 문화에 대한 정의 외에 기원, 특성, 요소와 구조 변화 등의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문화는 인류의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이며, 라틴어의 ‘Culture’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 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① 구미풍(歐美風)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문화생활·문화주택 등), ②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 우아함, 예술풍의 요소(문화인·문화재·문화국가 등) ③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종교·예술·과학 등을 가리킨다. ③의 경우는 독일의 철학이나 사회학에 전통적인 것이며, 인류의 물질적인 소산을 문명이라 부르고 문화와 문명을 구별하고 있다. ①과 ②의 경우는 문화가 없는 인류가 과거에 존재하였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과학, 특히 문화인류학에서는 미개(未開)와 문명(文明 : 高文化)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가 문화를 소유하며 인류만이 문화를 가진다고 생각 한다. 여기에서 문화란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思惟), 행동의 양식(생활방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협동을 학습한 사람들의 집단)로부터 습득하고 전달 받은 것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이다.

(2) 문화의 기원

문화의 기원을 살펴보면, 인류는 뇌가 발달한 결과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인(猿人)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는 작으며, 유인원(類人猿)의 뇌와 큰 차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도구를 제작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타일러의 설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인류의 직립 2족 보행(直立二足步行)³⁷⁾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이 전지(前肢) 2개와 손가락 10개의 기능과 신경

37) 마이오세(世)부터 플라이오세에 걸쳐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각지에 살았던 것으로 믿어지는 화석영장류(化石靈長類). 학명 Ramapithecus punjabicus 1960년대 E.시몬스가 그때까지 따로따로 불리고 있던 일련의 화석, 즉 G.필그림이 인도에서 발견한 드리오피테쿠스 푼자비쿠스(1910),

계통을 발달시켜 신경조정을 복잡·고도화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언어의 사용과 도구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발달 결과 직립보행의 자세가 확실하게 되었다. 즉, 문화와 신체는 병행하여 진화과정을 밟았으며,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인류는 다른 생물과 같은 유전과 변이(變異)의 반복만이 아니라 특수화하고 복잡하게 발달한 대뇌와 신경계통을 통하여 인류사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급속히 문화를 발달시켰던 것이다.

문화에 포함된 주요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는 신앙과 지각, 가치와 규범, 사회나 집단의 풍습과 행위를 언급한다. 둘째, 문화는 인지, 감정 그리고 일치된 방식 안에서 한 집단 사람들이 공유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셋째, 공유된 믿음,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지나치는 형태의 양식과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의 일치가 보존되도록 돋는 문화에 대하여 새로운 구성원을 사회화하고 교육하는 것을 포함한다. 넷째, 문화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믿음, 정신적·형태적 과정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³⁸⁾ 이와 같이 인간에 의해 인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을 뜻하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문화의 일반적인 개념이다.

(3) 환경디자인 관점에서의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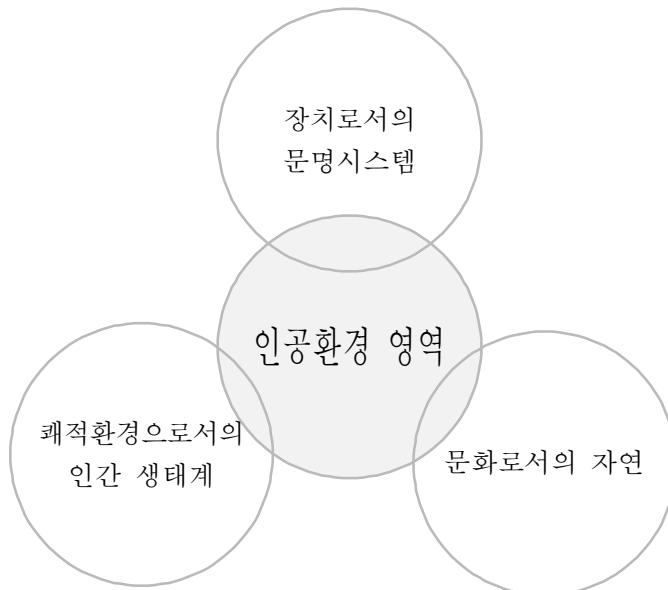
디자인 분야에서 문화는 전통적으로 디자인에 늘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한적 요소로 여겨졌으며³⁹⁾, 자연적 조건과 병행하여 문화적, 자연적 조건으로 언급되면

G.루이스가 역시 인도에서 발견한 라마피테쿠스 브레비로스티스(1932), L.리키가 아프리카에서 발견한 시바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와 케니아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1951, 1962) 등을 조사한 결과, 치열궁(齒列弓)이 사람에 가까운 포물선상이고, 앞니와 송곳니가 작으며, 어금니의 치관도 낫 아 사람과 같은 등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어, 이것을 일괄해서 라마피테쿠스 품자비쿠스라 이름 하였다. 라마피테쿠스는 어느 정도 직립 2족 보행을 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래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람속(屬)의 직접적인 조상이며, 사람과(科)의 일원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38) Altman Chemers 1980, 재인용, 변혜령 2001, p54~55

39) 원용진 (대준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1996 노경훈, 윤민희(디자인 문화와 생활) 예경, 1999,

서 디자인의 배경적인 요소로 다루어졌다. 일본 환경디자인 연구회에 의하면 인류는 스스로의 생물체의 외측, 즉 체외대사계(體外代謝系)로서의 인공 환경에 3개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표 11 참조]



[표 12] 인공 환경을 둘러싼 관계⁴⁰⁾

여기에서 인공 환경을 문명, 인간, 자연이라는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자연을 중요한 문화의 개념으로 보았다.⁴¹⁾ 한편, 문화를 인간 및 물리적 환경과 함께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인간과 문화,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상호 관계는 이 세 가지를 개별적인 주제로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의 단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생태학이라는 학문 분야로 분류된다. 이에 따르면, 물리적 환경은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관계는 하나의 원인과

기타 사이버 조선일보, 동아일보
40) 환경디자인 연구회 편, 2002. 8
41) 환경디자인 연구회편, 2002. 8

하나의 결과로 구성된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의 복잡한 네트워크(Networks)와 사건들로 설명될 수 있다.⁴²⁾ 즉, 문화는 배경이 되거나 제한적 조건에서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밀접한 관계성을 갖게 된 것이다.

환경디자인에서 커뮤니티는 문화와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성을 지녀왔다. 인류학자 아렌스버그(Conrad M. Arensberg)에 의하면, 커뮤니티 형태와 커뮤니티 문화와 상관관계는 일대일 관계이다.⁴³⁾ 한편, 수베르그(G.Sjoberg)는 선사시대 도시 커뮤니티의 위치를 결정하는 괄목할 만한 요소들로서 환경, 기술, 경제, 권력의 구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문화적 가치들을 꼽았다. 그에 의하면 환경은 그 자체로서 활동력이 있는 동인인 아닌 식량의 공급, 교환 그리고 용이한 운송에 있어서 잉여를 제공하는 생태학적 조건이다. 그것은 사회적·기술적 기능(skill)과 인구 성장을 제한하였다.

이처럼 문화는 커뮤니티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역사의 세계전쟁이 다다이즘⁴⁴⁾과 같은 예술운동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가치의 심각한 결핍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대두될 정도로 문화는 배경이 아닌 적극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문화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여 환경디자인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여 환경디자인에서 문화는 환경과 일대일 대응관계로 개념화 되고 있다. 무어(Keith Diaz moore)는 문화와 환경을 두 요소가 결합하는 부분이 의미가 되는 관념론적 구조로 보았다. 여기에서 의미는, 문화와 하위문화(sub-culture)⁴⁵⁾의 다원주의⁴⁶⁾ 및 기존 환경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42) Altman and Chemers, 1980, 재인용, 변혜령 2001, p5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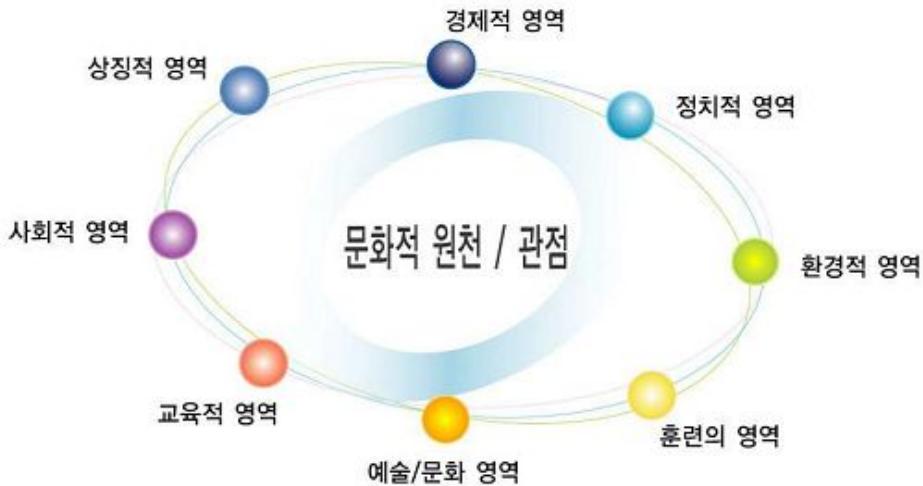
43) Dober, Richard 1969, p75

44) 다다이즘(Dadaism) : ‘dada’ 라고도 하며, ‘아무 의미도 없는 말’ 이듯이 모든 사회적·예술적 전통을 부정하고 반이성(反異性), 반도덕, 반예술을 표방한 예술 운동. 1920년대 유럽에서 성행한 것으로, 브르통·아라공·엘뤼아르·뒤샹·아르프 등이 참여 했는데, 후에 초현실주의에 흡수되었다.

45) 하위문화(Sub-culture) : 어떤 사회의 지배적 문화와는 별도로 청소년이나 피히와 같은 특정 사회 집단에서 생겨나서 발전하는 독특한 문화

46) 다원주의(多元主義) : [명사]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사회적으로 구축되면서 자연과 인간이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상화 작용하는 것으로 재고된다. 실제로 최근 환경디자인에서 문화는 계획의 중심에 놓이고 있다.



[표 13] 계획관점의 문화적 원천⁴⁷⁾

최근 환경디자인에서 문화는 계획의 중심에 놓이고 있다. 이반츠(Graeme Evans)의 경우 도시 환경에서 문화적 계획 관점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적 계획은 사회의 문화적 원천을 구성하는 행위와 시설 및 쾌적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적 계획 관점이 “한 도시의 문화적 원천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환경적, 정치적, 상징적 함의들을 관찰하고 이에 작용하는 프로세스”인 정책의 형성을 통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념적 틀이 개발되었다.⁴⁸⁾ 즉 문화는 계획의 원천을 이루며 다양한 관련 영역들을 모두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47) Comedia 1991, 재인용 : Evans, Graeme, 2001.8

48) Evans, Graeme 2001, p7~8

고려하는 중심적인 관점으로 인식되었다.

관광객들이 여행하고 있는 도시의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 도시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녀 나라에나 있는 가로등, 휴지통, 벤치이지만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리는 도시마다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무형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공공환경 디자인에 문화를 담는 것은 도시와 도시민의 정체성을 찾는 동시에 도시를 사람들이 다시 찾는 곳으로 만드는 활동이다. 일부 신도시나 새롭게 재건설하는 도시에서 선진국의 공공환경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해 특색 없는 디자인을 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도시는 그 자체가 거대한 브랜드화 되고 관광 상품화 되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탈리아의 전통적 특색이 묻어있는 거리와 과거 로마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분수가 있는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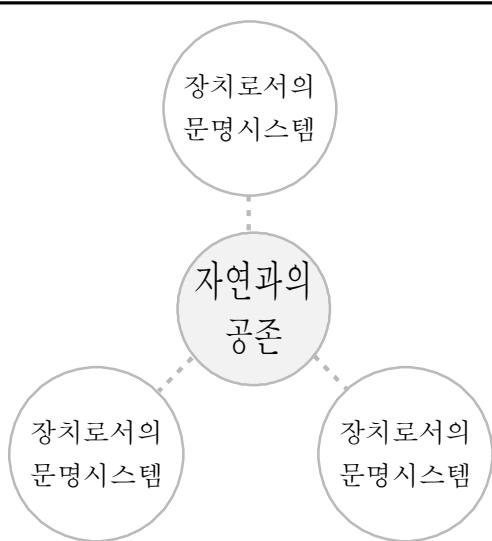
[그림 1] 문화가 반영된 공공환경 디자인 사례

문화와의 소통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의 발전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사람이 한 도시에 산다는 것은 장소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 도시의 생활 방식과 문화 과거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연속성은 그 도시가 미래로 나

아갈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공공환경에서 문화를 접목시킨다는 것은 디자인을 전통적 이미지로 그럴 듯하게 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문화생활을 이해하고 그들과 가장 조화로운 공공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다.

나. 공공환경디자인과 환경

무문별한 도시화로 인한 자연의 파괴는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다. 계획성 없는 도시의 팽창 속에 개인의 공간 이외는 쓸모없이 버려진 공간이 되어 갔고 자연이 사라진 공공의 공간은 인공적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놓여있는 대중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자연환경의 회복과 공존의 삶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되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환경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다. 인공의 구조물 속에 자연적 요소를 끌어들이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공공환경디자인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숙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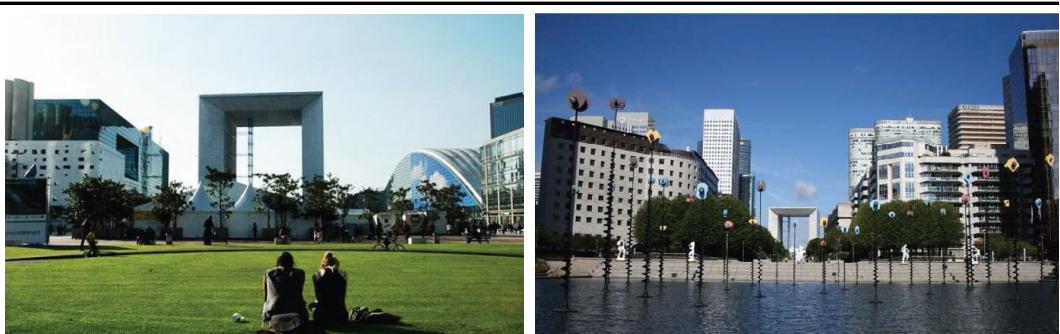
[표 14]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인공 환경디자인의 방향

풀과, 나무를 심는 경관적 차원을 넘어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과 잘못 디자인 된 공공환경으로 인한 도시의 자원 낭비를 막는 친 환경적 제도의 도입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디자인과도 그 의미를 같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ESSD)’은 환경

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시키자는 개념으로 이른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다.⁴⁹⁾

후세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지속가능한 효율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공공환경디자인 즉 인공적 환경의 디자인 방향은 집약, 통합화, 간결화, 효율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어지럽게 널려 있었던 공공 공간의 시설들을 통합하고 집약시켜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인공 환경으로 인한 자연 질서의 파괴를 막는 것이다. 간결화는 불필요한 것의 과감한 생략을 뜻한다. 가장 최적의 자연성은 더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것이다. 남용된 디자인은 오히려 공해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공간이 도시에게 줄 수 있는 이로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공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의 라데팡스, 모든 교통수단이 지하화되어 보행자를 위한 도시로 만들었다. 이는 자동차로 인한 공해를 완벽히 차단한 친환경 미래도시라 할 수 있다.

[그림 2] 친환경적 공공환경 디자인 사례

다. 공공환경디자인과 디지털기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그로인한 인간 생활의 향상은 공공환경의 이야기만이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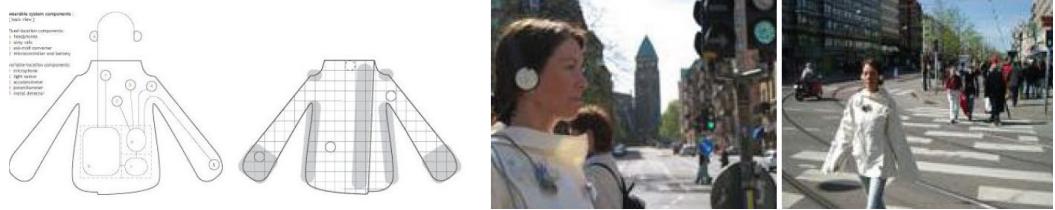
49) <http://cafe.naver.com/provisionalmorgue> 생태적 환경디자인 패러다임

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서 단지 퍼스널 컴퓨터, 핸드폰 등으로 대표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유비쿼터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 한다.’⁵⁰⁾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뜻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장소와 결합하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환경에 이런 유비쿼터스 디지털 기술의 결합은 도시에서의 인간생활을 편리하게 하여 경제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개발의 핵심에 기계가 아닌 인간 중심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디지털 기술의 또 다른 방향은 정보전달, 편리의 기술적 측면에 인간의 감성을 결합하여 미래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노력이다. 스웨덴의 Viktoria Institute와 Re: form이 개발한 Sonic City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와 인간을 감성적으로 이어주려는 시도를 한 프로젝트로 현재의 패러다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방법은 센서가 달린 옷을 입고 헤드폰을 끼고 거리를 걸으면 그 사람의 주변의 상황이나 위치, 행동 등에 센서가 반응하여 음이 생성된다. 이는 도시의 모든 곳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청각’이라는 사람의 감성을 이용하여 도시를 재인식하게 하는 신 개념 프로젝트이다. 똑같은 외관의 도시지만 어떠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는 무한하게 달라지며 개개인과 도시와의 소통은 디지털 기술이 그동안 도시에서 무시되었던 인간 존엄성을 찾는데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50) naver 백과사전 <http://dic.naver.com>



스웨덴의 sonic City⁵¹⁾

[그림 3] 디지털 기술이 도시환경에 반영된 사례

제 3 절. 공간개념의 도시환경 이미지개선 연구

1. 공간의 이해

가. 공간의 의미

(1) 공간과 장소

공간과 인간은 분리해서 개념 치울 수 있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공간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간에 대한 관심은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과도 같은 것이다. 공간의 이해는 인간이 그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규정짓지 못한 거대한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연구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인간이 이해는 공간은 종이컵 안의 작은 공간부터 우주의 공간까지 그 크기와 범위가 제각각 다르며 사물들로 채워져 있는 물리적인 공간에서부터 5차원의 공간⁵²⁾까지

51) <http://www.tii.se>

52) 건축과 인간의 관계를 도양 철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예슈위엔은 인간의 심상과 관련된 공간을 5 차원의 공간이라고 불렀다. 그에 의하면, 물리적 공간은 3차원적이며,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4차원이 된다.(이영주, 장소형성을 위한 공간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1998, p9)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이 인간에게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 인간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곳에서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하려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간에서 인간의 행동이 의미를 가질 때 그곳은 장소가 된다.

사람들이 햄릿(Hamlet)이 여기에 살았다고 생각하자마자 곧 이 성이 바뀌는 것 이 이상하지 않은가? 과학자로서 우리는 성이란 단지 돌들로 구성되었다고 믿으며, 건축가가 그것들을 구축한 방식을 감탄한다. 돌, 고색창연한 녹색지붕, 교회의 목조 조각들 등이 교회의 전체를 형성한다. 이들 중 어느 것도 햄릿이 여기에 살았다는 사실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바뀐다. 갑자기 벽체들과 누벽 들이 아주 다른 언어로 이야기 한다. 정원은 전체가 세계가 되고, 어두운 목소리는 우리에게 인간 마음의 어둠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 하는 소리를 듣는다. (중략)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크론베르그 성이 우리에게 아주 독특 한 성이 되는 것을 안다.⁵³⁾

위의 글은 공간이 인간의 존재에 의해 장소로 바뀌는 것을 잘 보여준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장소의 또 다른 특징은 장소가 그 곳에 존재하는 인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 공간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 공간을 이용한 사람들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같은 공간일지라도 그 곳에서 느끼는 감정은 저마다 다르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과 사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현상들까지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다른 요소들과 관계를 맺으며 쉼 없이 진화하고 있다. 즉 장소는 주변의 것들과 관계를 맺으며 변화하는, 인간이 실존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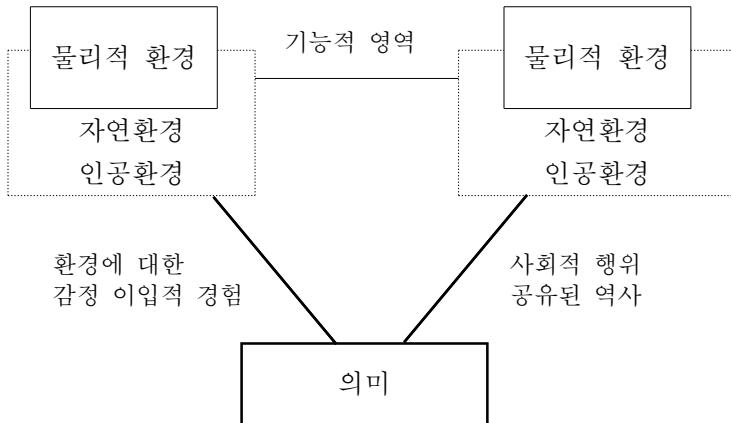
53) 권범철, 서울광장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7, p17
채인용(원문 : Heisenberg, W.
Physics and Beyond: Encounters and conversations, 1972, p51)

(2) 장소성

장소와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인간과의 관계는 장소성을 형성하는 주요요소이다. 장소성은 장소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체성은 장소 안에 존재하는 인간에 의해 형성된다. 장소에서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 졌을 때 장소가 그 활동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지원하고 장소로서의 역할을 잘 이행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평가하게 된다. 장소가 이런 인간 활동의 의도에 부합되었을 때 인간은 그 장소에 애착을 갖게 되고 지속적으로 만족했던 장소와 교류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장소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장소의 의미가 극대화 된다. 장소의 정체성과 특별한 애착은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하며 사람들은 장소와 연계감을 갖는다. 같은 장소 일지라도 장소성은 개인에 따라, 집단에 따라 저마다 상이한 성격을 보인다. 이는 장소를 체험하는 인간의 범주에 따라 장소성이 달라짐을 뜻하며 장소성을 형성하게 하는 체험의 방식도 다름을 의미한다. 개인이 만드는 장소성은 지극히 개인 일상에 관련된 것이므로 한 공간에 대해서도 무수한 장소성이 나타나며 그 장소가 공공공간이라 할지라도 공통적인 장소성을 찾는 것이 힘들다. 집단에 따르는 장소성은 공동체 혹은 사회가 구현하는 특징으로 한 시대의 사회가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를 뜻한다. 이도 집단의 성격에 따라 사회 구성원에 따라 다른 장소성을 갖지만 개인이 느끼는 장소성과는 구별되는 충체적인 것이다. 또한 집단이 갖는 장소성은 시대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나. 장소성의 구성요소

장소를 구성하는 세부요소들은 나열하기 힘들만큼 많은 수가 있으며 이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은 정신적 측면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 15] 장소성의 구성요소

이러한 장소 정체성의 요소를 E. Relph⁵⁴⁾는 어느 정도 함께 묶여 있거나 식별 가능한 요소로 분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구조화 시켰다. 장소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정적(靜的)인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세 요소는 다른 요소로 대치될 수 없으며 물리적 환경은 자연환경과 인간이 창조한 환경으로, 인간의 활동은 창조적이거나 수동적인 것, 공공적이나 개인적인 것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는 서로 상호 관련이 되어 있는 이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과 인간 활동이 결합되면, 동물적 활동 영역인 ‘기능적 영역’이 되며, 인간 활동과 의미의 결합은 물리적 환경과는 별개로 사회적 행위와 공유된 역사 속에서 결합된다. 또한 물리적 환경과 의미는 경관이나 도시 풍경에 대한 직접적이고 감정 이입적인 경험 속에서 결합된다. 이와 같은 세 요소의 융합이 장소성을 구성하는 것이다.

54) E. Relph,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2005) p112~115 요약

2. 공간과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에 관한 고찰

가. 공공공간에서의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에 관한 고찰

(1) 장소와 친밀감

친밀(Intimacy)의 사전적 의미는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움’이라는 뜻으로 ‘사이’ 즉, 관계적인 의미와 소통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장소에서의 친밀감은 장소와의 관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의한 결과로 ‘장소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소의 친밀감은 인간 개인의 주관적 상황에 놓여 질 수 밖에 없다.

나의 가슴은 지금 슬픔으로 어두워 졌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곳 어디에서나 나는 죽음을 보았다. 내가 노상 드나들던 곳은 나에게 심한 고통의 장면이 되었으며 나의 집은 고통이 되었다. 그가 없어지자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것을 몹시 괴로운 체험이 되었다. 그가 없어지자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것을 몹시 괴로운 체험이 되었다. 나의 눈은 계속해서 그를 찾고 있었지만 그를 찾을 수는 없었다. 나는 우리가 만나곤 했던 모든 장소를 증오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장소들은 예전처럼 “봐, 저기 그가 와” 하고 나에게 말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⁵⁵⁾

위의 글에서 장소의 가치는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인간의 장소에 대한 친밀 혹은 싫음의 감정이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친밀감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해도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 하지

55)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대윤(2005), p225

는 않다. 어떠한 장소에서 느끼는 친밀한 경험의 정도가 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친밀감을 줄만한 요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비슷한 의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친숙하고 편안한 것에 대한 선형적 끌림일 수도 있고, 같은 문화와 사회 안에서 터득한 공통적 경험에 의한 끌림일 수도 있다. 장소의 친숙함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이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투영되어 있어서 장소에서 활동하고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며,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소통한다는 점, 또한 장소의 친밀한 경험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렇게 장소에 대해 긍정적 느낌이 축적되어 사람들은 그 장소를 자신과 친밀한 장소로 인식하게 된다.

(2) 도시환경 이미지개선과 Private의 관계

공공성과 개인성은 그 기본 개념에서는 대립되는 의미이지만 공공공간에서 사적인 것의 자유는 공공성의 가장 근원이 되는 요소이다. 친공공성이라 함은 공공공간의 여러 요소의 총체적인 조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의 근본은 도시활동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개인의 만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공공공간은 개개인의 자유가 발현되어 이들의 개성이 만나는 장소로써 활발하게 공간이 쓰여질 때가 공공공간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이며 이의 결과로 도시의 문화가 형성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 공공공간에서 개인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될 때 진정한 공공성을 갖는 것이다. 공공공간에서의 개인은 익명(Anonymity)이라 할 수 있다. 익명이 공공공간에서 개인성의 상실로 이어질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로 이어질지는 공간과 인간의 소통에서 찾을 수 있으며, 양자 사이의 원활하며 적극적 소통이 공공친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나. 공공공간에서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의 요소

(1) 시각적 요소

주변의 환경을 인지하고 평가하는데 가장 우선이 되는 과정이 시각이다. 인간의 감각기관들이 학습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비중은 미각이 전체의 1%, 촉각이 2%, 후각이 4%, 청각이 10%를 차지하며 나머지 83%가 시각이다.⁵⁶⁾ 이와 같이 시각은 사람들이 어떠한 물건이나 공간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공간에서도 시각적 쾌적함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도시생활에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제공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며 필수 요소이다. 공공공간에서 시각적 쾌적함을 줄 수 있는 요소는 공간의 형태와 색채, 각종 시설물의 조형성과 환경과의 조화, 사인, 정보물의 이미지 정리 등 매우 다양하다. 시각적 작업은 통일성과 조화를 통해 도시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감과 동시에 활력과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관의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일관되고, 도시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미지 작업이 중요하다.

56) 윤영주, 도시환경에 있어 가로공간의 슈퍼그래픽에 관한 연구, 계명대, 1999, p10 재인용



[그림 4] 공공공간의 특색 있는 이미지 사례⁵⁷⁾

(2) 경험, 체험적 요소

시각이 공공공간의 표면적 인상과 표현의 방법을 제시한다면, 공공공간에서의 경험과 체험은 보다 적극적인 공공친화를 이끌어내는 요소이다. 사적인 공간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개인이 공간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목적성을 굳이 규정짓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공공공간을 찾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목적이 뚜렷하며 그에 따르는 공간의 평가도 냉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선 공공공간은 그 요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공공공간이 사람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는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편리한 방법을 제시할 때 공공공간의 친밀성이 더욱 높아진다. 현대의 공공공간은 본래의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즐거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며 공간의 기대치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래의 사례

57) 연재,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산책, 이미지 발췌

에서 볼 수 있는 카페 같은 은행도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경기저축은행 성남지점, 스파서비스, 고객들이 편하게 차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판소리 도서관, 서양화가 임완규 화백의 갤러리 등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 공공공간의 다양한 경험제공 사례

(3) 선형적 요소

인간은 인공적인 것이 없는 순수한 자연에 대한 선형적 끌림이 있다. 도시의 개발은 도시의 이미지를 회색의 콘크리트로 바꾸어 놓았다. 삵막한 도시 안에서 인간은 개성을 상실하고 자연의 파괴로 인한 위협을 느낀다. 공공공간의 생태성 회복은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며, 도시를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으로 바꾸어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회복으로 인한 친공공성은 High-Technology와 결합하여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오감을 이용해 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위의 세 요소들이 공공공간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조화롭게 나타날 때 사람들의 공공공간에 대한 인티머시⁵⁸⁾가 지속되어 진다. 이처럼 공공공간에서 친밀함을 느끼는 요소를 기본으로 공공공간의 장소, 환경, 도구 그리고 인간사이의 관계에서

58) 인티머시(intimacy) : ①친밀, 친교; 친한 사이 ②상세한 지식 naver 백과사전

친공공성을 위한 더욱 적극적이며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재 시도되고 있는 공공공간에서의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제도의 정비 등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위와 같은 인터미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제 3 장 상무신도심의 공공시설물 분석

제 1 절. 공공시설물의 개념 및 유형

1. 공공시설물의 개념

공공공간의 시설물은 그 장소의 표정을 만든다. 사소한 휴지통 하나도 그것의 디자인과 놓여진 장소,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는 휴지통이 그 장소에 어울리는지 아니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처럼 도시의 공공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안전함, 정보전달, 행위의 유도 등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며 장소성을 부여하는데 이로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도시 공공의 공간 속에 존재함으로써 대중과 대중 간, 대중과 공간간의 소통을 도와준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은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라고 쓰이며 ‘Sight Furniture’ , ‘Urban furniture’ , ‘Urban Element’ 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그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Lawrence Halprin(1916)은 공간 그 자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외향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가로시설물은 도시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대장치와 같은 조정 장치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이용되어 편안하고 유용하게 해주고 예술적 감흥을 일으켜 주기도 하며 활동을 유도하는 부대적 시설 및 반 건축물⁵⁹⁾이라고 하였고 G.Eckbo는 가로시설물 Community Furniture라 부르면서 이러한 장치 물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한 지각요소(Perceptual Element)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⁶⁰⁾ 위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시설물은 공공 즉 도시의 다수에게 이로워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내의 지각요소라 지칭 될 만큼 그 도시의 문화나

59) 윤승로, 도시환경색채분석을 이용한 가로시설물 색채배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p18

60) 한선아,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통합에 의한 가로경관 개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1, p9

정체성을 담아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인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역할로서의 의미도 크다.

2. 공공시설물의 분류

공공시설물이 공공공간에서 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사람들을 쉬게 하고 도시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며 각종 정보를 주는 등의 도시민들을 돋기 위한 기능이 있다.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시설물들이 공간에 놓임으로써 사람, 건물 등과 함께 공간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서의 기능도 한다. 예를 들어 광장에 규칙적으로 놓여 있는 벤치와 가로수들의 정렬은 그 광장의 모습을 만들어 내며 광장만의 특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더 넓게 나가서는 지역의 특수한 패턴이 담긴 시설물이나 특수한 색의 공공시설물은 지역의 특수성을 만들어 문화의 요소로서 작용한다. 이처럼 공공시설물의 기능은 사람의 쓰임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측면 지역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을 분류하는 기준 또한 매우 다양해서 공간에 따라, 용도 또는 역할 등에 따라 점차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공시설물은 크게 정보계, 편의계, 판매계, 환경계, 조명계, 교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영역별로 세부 가로 시설물들이 분류되어 포함 된다.⁶¹⁾

61) 한선아,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통합에 의한 가로경관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1, p9~10

분류영역	가로시설물	기능
정보계	지역안내판, 종합안내판, 사인, 공중전화, 우편함, 포스터게시판, 신문게시판, 시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도시생활환경을 쾌적하고 편의성 높게 만드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 기능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며 단체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보행자와 자동차의 교통을 정리
편의계	벤치, 쉘터, 테이블, 파골라, 휴지통, 재떨이, 화장실, 음수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체적 휴식이나 편의 뿐 아니라 혼자 사색에 잠기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풍경을 즐기는 내용까지 포함
판매계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매점, 판매대, 옥외카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계 가로시설물은 상행위에 의해 거리에 활기를 주고 보행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가로체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시민의 '이벤트'공간 연출
환경계	가로수, 화단, 환경조형물, 분수, 수로, 광고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공간의 환경에 변화를 주며, 경관을 갖추게 함으로써 보행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보행자의 심리적 안정감, 정서, 쾌적성 및 편의성 등과 밀접하여 인공적인 도시공간에 윤택함과 풍요로움을 부여
조명계	기능조명(가로등, 보행등, 안전등), 연출조명(가로조명, 정원등, 점멸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둠을 밝히는 실용적 목적 이외에도 환경 연출의 목적도 지님 일반적으로 조명의 용도는 자동차 및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을 위한 환경제공 랜드마크 및 시설물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돋보이게 하며 매력 있는 야경을 연출하여 상업 활동 보조
교통계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볼라드, 주차미터, 가드레일, 육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와 공공수송기관의 접점시설물은 승강객의 표지이며 기다림의 장 공간에 리듬과 방향성을 주는 포장 및 볼라드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함
놀이기구계	그네, 미끄럼틀, 모래터, 철봉, 놀이조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집단 주거지 안이나, 공원등에 설치, 놀이의 즐거움을 주고 아이들의 놀이 활동을 보조
행사계	행사용 임시 옥외시설, 배너, 임시 노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이며 주로 광장이나 공터에 설치
관리계	전신주, 관리부스, 노면계 관리시설, 소화전, 모래함, 맨홀, 환기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생활 전체를 무지하는 가로시설물로서 거의 대부분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실외에 설치 다른 시설물들과의 조합으로 조명이나 사인들의 또 다른 기능으로도 사용

[표 16] 가로시설물의 분류와 기능

3. 공공시설물의 구성요소

공공시설물은 인간과 공간, 도시환경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구성요소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시설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인간과 공간사이의 단절이 일어나고 원활한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필요한 요소를 마련해 두고 이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시설물의 사용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요구를 한번에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안전, 아름다움, 편리함 등의 기초적인 것의 요구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공공시설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구성 요소를 6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요소들은 공공성, 기능성, 상징성, 조형성, 생태성, 안전성으로 대표될 수 있다.



[표 17] 공공시설물의 구성요소

(1) 공공성

그동안의 대부분이 공공시설물이 인간공학적 측면이나 대중의 심리적 측면의 연구 없이 만들어져 왔고 이러한 시설물은 오히려 공공성을 헤치는 모순을 겪어왔다. 시설물의 본질적 개념이 공공환경에서 인간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서비스의 측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 공공시설물의 가장 부족한 측면 또는 공공을 위한 서비스이다.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개인의 취향과 요구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다수를 위한 디자인은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의 측면에서도 공공시설물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인간의 삶의 방식을 적극적 입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기능성

공공시설물의 기능성에 대한 고려는 도시의 경제적 측면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다. 도시의 시설물은 공공의 자본으로 설치 관리되며 그 범위가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기능성의 부재는 도시인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앞으로는 복합적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물의 개발로 사용성을 높이며, 유비쿼터스의 발달에 맞추어 시설물들의 연계를 통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도시인들의 니즈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적 기능성 이외에도 모양이나 소재 측면에서도 기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3) 상징성

도시의 랜드마크적 시설물은 지역 상징성을 갖는다. 이는 복잡한 도시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역 특성의 표현 요소로 주민의 결속에도 기여한다. 굳이 랜드마크를 위한 큰 구조물 이외에 작은 시설물이어도 그들의 문화가 담긴 통일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일 때 도시의 문화를 상징하며 지역 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이는 도시인에게 동질감을 주며 장기적으로 도시의 역사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4) 조형성

공공시설물은 도시 이미지가 표현되는 매체 중 하나이다. 공공시설물이 도시 생활 전반과 관련이 있고, 외부에 표출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이나 공공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공공시설물의 조형성은 도시 생활 전반에 걸친 미적 수준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조형성은 시설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간 안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개성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하게 된다. 또한 조형성을 고려할 때 시설물의 사용성을 같이 생각함으로써 공공시설물 최상의 효율을 끌어낸다.

(5) 생태성

공공시설물도 자연안의 도시공간에 놓여 진 하나의 구성체이다. 공공시설물의 생태성에 대한 고려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법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의 자연을 편하게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과 삭막한 도시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공공시설물의 사용하는

주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공공시설물의 유지나 활용의 과정에도 생태적 방법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안전성

인간의 행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의 특성상 인간의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공공시설물의 구조의 안전성 이외에도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시설물이 놓이는 위치적 안전성과 사용상 작동의 안전성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물이 외부에 놓이는 특성상 비, 바람, 천둥과 같은 자연적 요소에 의한 부식, 침범, 고장, 파괴 등의 상황에도 미리 대처하여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 절.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전략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은 인간 행위의 연장이라는 개념에서 공공 공간의 장소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연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본 절에서는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역할을 알아보고 그를 위해 시설물이 갖추어야 할 전략을 세우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해본다.

1. 도시환경 이미지개선과 공공시설물의 관계

인간과 공공공간사이에서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것은 두 요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에 관한 측면이다. 공공공간의 대중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간에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적 공간보다 더 많은 요소의 만족을 요

구한다. 그 중에서도 공공시설물은 인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치로서 공공시설물의 인간 행동과 감정 지원의 만족 여부는 시설물이 놓인 공공공간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적 공간에서의 생활을 제외한 모든 옥외의 공공생활과 일상적 생활 전반에 공공 공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서 공공시설물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조율하고 도시의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의미 있는 공공시설물은 공공환경을 비롯한 인간의 총체적 환경을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공시설물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공간에 대해 친화를 느끼게 하는 것은 시설물 하나의 작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시설물이 있으며 이들의 기능도 놓여 진 위치나 쓰임새에 따라 저마다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시설물이 개별적으로 공간에 위치한다

면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공간의 특성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공공친화를 위한 시설물의 적용은 환경의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시설물 상호간에 긴밀한 연결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Management)를 통해 언제나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Service의 개념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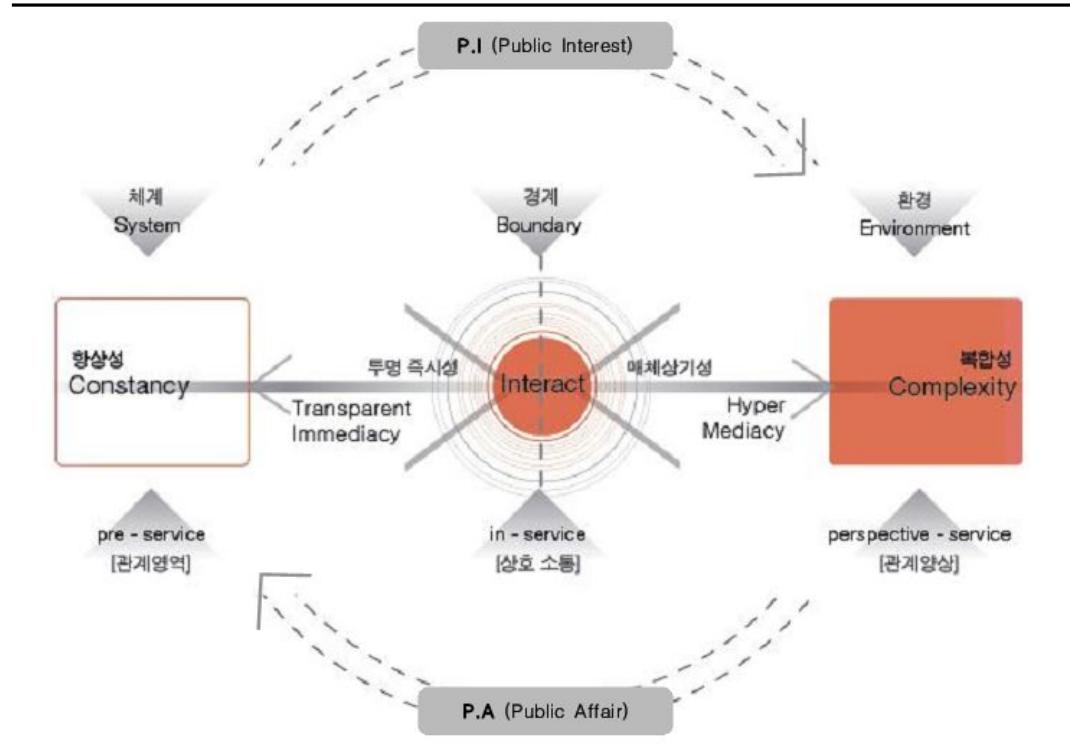
그렇게 될 때 소소하지만 다양한 공공시설물이 모여 인간에게 공공공간의 긍정적 의미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표 18]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역할

2.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요소 연구

공공공간에서 공공시설물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요소로 우선 공공성, 기능성, 상징성, 조형성, 생태성, 안전성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그에 따르는 공공시설물이 갖추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기본으로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위해 공공시설물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관계 영역적 측면, 상호 소통적 측면, 관계 양상적 측면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공공시설물이 공간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서비스의 개념으로 공공시설물의 체계에서부터 인간과의 소통의 경계를 통해 친공공환경으로 작용하는 전 과정에서 친 공공성을 위한 요소로써 항상성(Constancy), 상호교류(Interact), 복합성(Complexity) 3개의 특성을 추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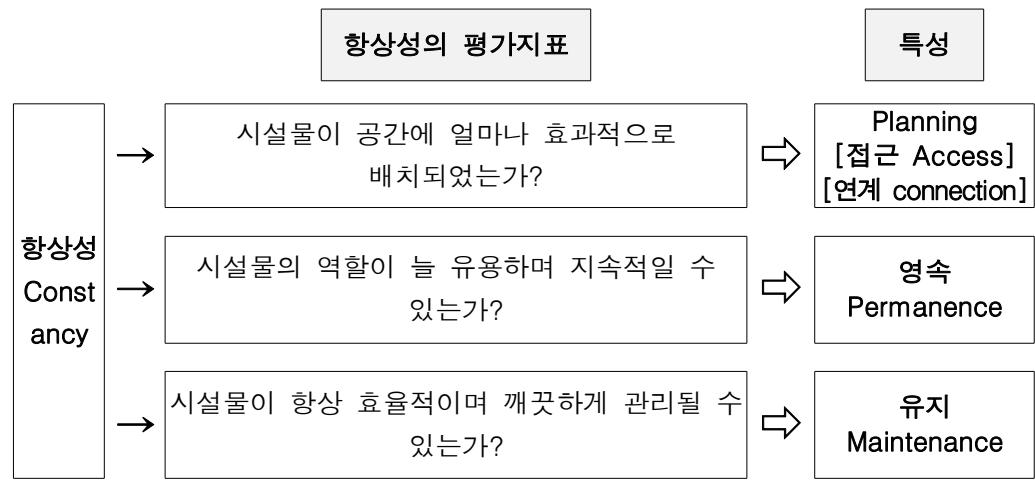
[표 19]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전략

였다. 본 장에서는 공공친화를 위한 시설물의 요소를 통해 효과적인 시설물의 전략을 세우고 각 요소들의 연계성을 통해 시설물이 공간에서 통합적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1) 관계영역 – 항상성(Constancy)

공공공간의 시설물은 공간에서 단독으로 기능을 하기보다는 주변의 시설물, 주변 공간, 이용자들의 관계 사이에서 일련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물 System적인 측면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시설물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요소(Pre-service)이며, 관계의 영역과 범주, 관리(Management)의 문제이다. 공공공간은 불특정의 다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만큼 공간의 만족도에 따라 사람들의 공간 이용의 횟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사람들의 이용을 높이고 지속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체계에서 항상성(Constancy)의 요소가 필요하다. 항상성은 시설물의 초기 플래닝(Planning)에서부터 유지, 관리까지 모든 부분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단계별로 항상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각각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

Planning 단계에서는 공간에서 시설물의 효과적 배치를 위해 접근(Access)과 연계(Connection)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공공공간에 들어서서 공간 체험까지의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공공공간을 처음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도 공간의 성격과 기능을 바로 전달해 줄 수 있어서 공간에 대한 인상을 좋게 한다. 또한 시설물은 그 역할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에 머무르는 동안, 공공공간을 다시 찾을 때마다 영속적(Permanence)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시설물의 유지(Maintenance)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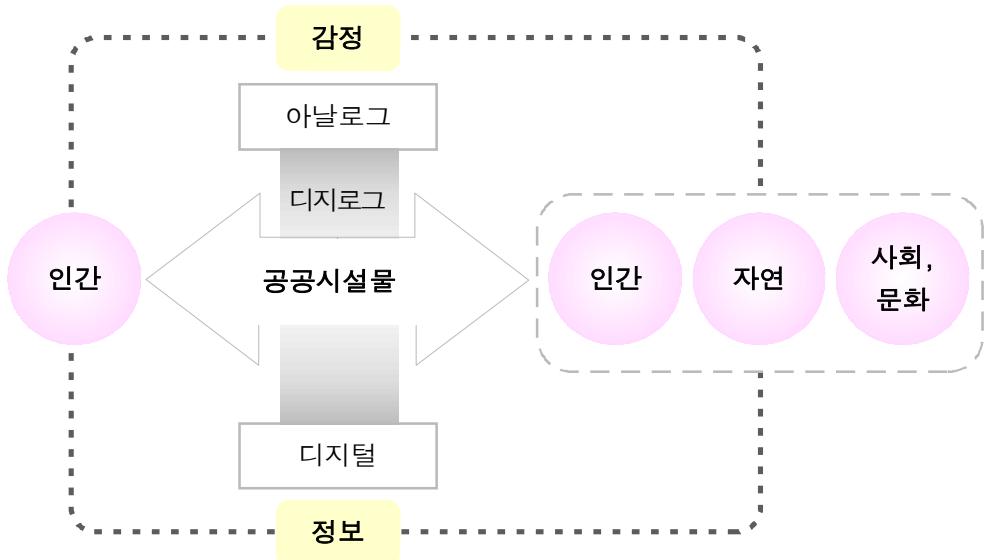
[표 20] 항상성(Constancy)의 평가지표 설정

(2) 상호 소통(Interact)

공공공간에서 인간의 행위는 인간과 공공시설물 사이에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상호 작용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간과 공공시설물의 경계에서는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통의 방식과 내용은 직접적인 서비스(In-service)로 사람들에게 작용한다. 공공시설물과 인간의 상호 소통의 큰 틀은 다음 [표 18]에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간은 공공공간에서 타인, 자연 그리고 사회, 문화와 감정, 정보 등을 교류한다. 또한 이들의 교류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런 소통의 중심에 매개체가 되는 공공시설물이 있다.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디지털적인 방식과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디지털 방식의 정보 전달에 아날로그적 사람의 정서와 심리를 융합하는 디지로그(Digilog) 방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의 디지털 환경의 발전은 공공공간의 시설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디지털의 발전은 공공환경 뿐 아니라 인간 주변의 모든 환경에 적극

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공공시설물의 Interact 방식에서 디지털 미디어 (Digital Media)의 활용은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표 21] 공공시설물의 상호 소통(Interact)의 역할

뉴 미디어이론에서의 투명즉시성 (Transparent Immediacy)과 매체상기성 (Hyper Mediacy)은 사람들과의 매개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언급되는 특징이다. 이 논리는 Jay David Bolter와 Richard Grusin의 저서인 Remediation : Understanding new media(1999)에서 언급되었다. 이러한 뉴 미디어의 두 가지 특성을 인간과 공공환경의 매개인 공공시설물에 도입함으로써 친공공환경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투명즉시성 (Transparent Immediacy)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은 그 형태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미디어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환경은 사람들의 주변에 깊숙이 관련되어 현실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Remediation에서는 투명즉시성을 ‘매체의 현재성(Presence)을 보는 사람들이 잊도록 만들어서⁶²⁾ 매체의 내용과 즉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매개물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그 미디어 속 내용을 실재의 환경처럼 인식한다는 것이다. 공공시설물에서 투명 즉시성(Transparent Immediacy)의 적용은 그 표현방법이 굳이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공공환경과 인간의 관계에서 시설물의 위치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시설물의 존자가 사람들의 행동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물체로 인식하지 않고 행동의 한 부분으로 느끼도록 하여 더욱 다양한 공공환경을 체험하게 하는데 있어서 시설물과의 경계 없이 하나의 통합된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즉ち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공공환경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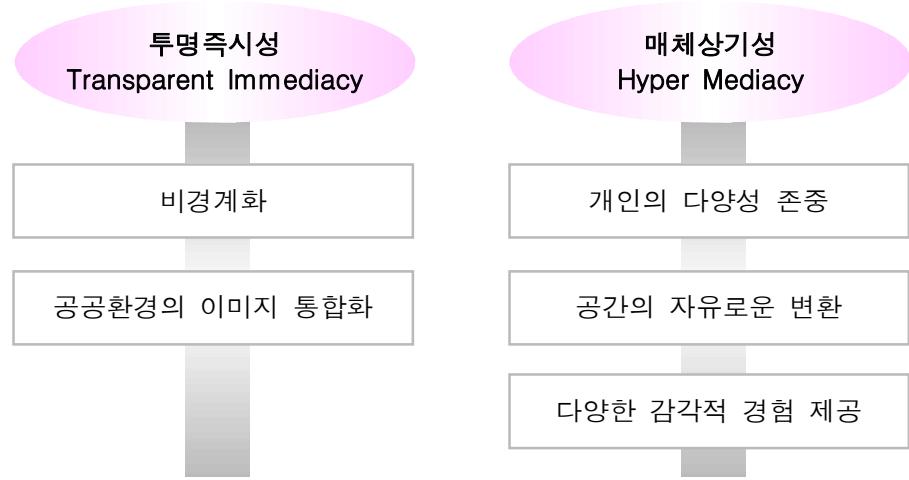
매체상기성(Hyper Mediacy)

Jay David Bolter와 Richard Grusin가 제시한 매체상기성(Hyper Mediacy)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매체를 상기하거나 인식하도록 만드는 시각적 표현 스타일을 뜻한다.⁶³⁾ 이는 사용자들의 복합적인 행동 패턴들을 인정하고 실현을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상을 조절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른 공간과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매체에 더욱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또한 인간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감각적 경험을 일깨워서 공간의 경험의 폭을 넓히게 한다. 시설물의 이용에서도 이와 같이 한가지의 행동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을

62) 김봉섭, www에 대한 욕망론적 접근, 미술문화 칼럼(<http://www.misulmun.co.kr>)재인용, 경희대학교

63) 김봉섭, www에 대한 욕망론적 접근, 미술문화 칼럼(<http://www.misulmun.co.kr>)재인용, 경희대학교

가능하게 하는 시설물 디자인이 필요하다. 공공시설물의 복합적 행동 지원은 개인성을 존중하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공간에서 남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표 22] 공공시설물에서의 즉시성과 매체상기성의 적용

(3) 관계양상 – 복합성 (Complexity)

공공공간에서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기대와 그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사건은 공간의 형태와 특성을 만든다. 즉 공공의 사항(Public Affair)은 공공의 흥미(Public Interest)와 관심요소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며 이러한 사람들의 공간에서의 활동과 지역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공공간의 특수화(Specialization)를 만든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의 요구와 행동양식, 관심요소를 연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공간적 사건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친공공공간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불특정의 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의 특성상 시설물의 복합성(Complexity)은 공공이익의 만족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또한 시설물의 복합성은 사람들이 그 시설물에 놓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경험을 다양

하게 제공하고 활동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공공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흥미의 폭을 넓힘으로써 공간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점차 다양해지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시설물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공간이 미래에 추구해야 할 방향이며, 친공공성의 가능성은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물의 복합성(Complexity)은 시설물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관계 양상적 측면이며, 서비스의 관점에서 공공환경을 통합하고 사용자의 복합적 행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Perspective – service라 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공간 이미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화 된 시설물은 공간 이미지에 효율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태환경과 인공 환경의 매개로서 역할의 복합화도 지니고 있다.

제 3 절. 공공시설물 조사 및 분석

1. 사례분석의 목적 및 방법

가. 사례연구 목적

도시 공공환경에 대한 최근의 관심과 여러 도시들의 성공적 공공환경 정비 사례는 공공환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환경의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공공공간의 구조와 특성 도시 속에서의 관계를 통해 정의를 내리고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을 중심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대상지의 공공시설물들이 공공친화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있는지 살펴본다. 공공공간의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이 도시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며 어떠한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

나. 사례연구 방법

공공시설물의 기본적 구성요소부터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향후 공공시설물의 계획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요소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 사람들은 도시에서 공공디자인을 접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통해 그것을 인지하고 사용한다. 이는 시설물을 공간에서 처음 접했을 때 시각적 인지를 통한 평가에서부터 선형적 인지인 안전에 대한 평가까지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이미지개선 전략을 통해 공간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이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바꾼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공공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발전의 조건이며 최종적으로 친 공공환경을 위해 필요한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시설물의 분류 기준에 따라 배치, 디자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조사함으로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에 부합하는 친 공공공간의 전략을 모색한다.

2. 대상지의 개요

가. 대상지 일반현황

지구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쌍촌동 일원으로 면적은 총 3.27km²으로 2009년 9월 말 현재 9,891세대, 인구는 30,357명(남:14,865, 여:15,492)으로 아파트 밀집지역 및 광주의 행정·금융·상업의 중심부로 부상하고 있으며, 각 급 공공기관 입주 및 인구유입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본 지구는 방형의 평면적인 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블록에 의해 지구가 구획되어져

있다. 지구 내에서는 지구 동측에 조성되어 있는 기존 수림대를 이용한 공원을 제외하고는 지형이 모두 평면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비교적 넓은 공간은 확보하여 조성된 공원도 평면상에 녹지를 조성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지구 북측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으나, 녹지대는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경관적인 측면에서의 기존 지형의 이용은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고층의 아파트 지구가 지구의 서측에만 조성되어 있어 중심부의 상업지구와 단독주택지의 경우는 주변 수림대로의 경관을 미약하나마 형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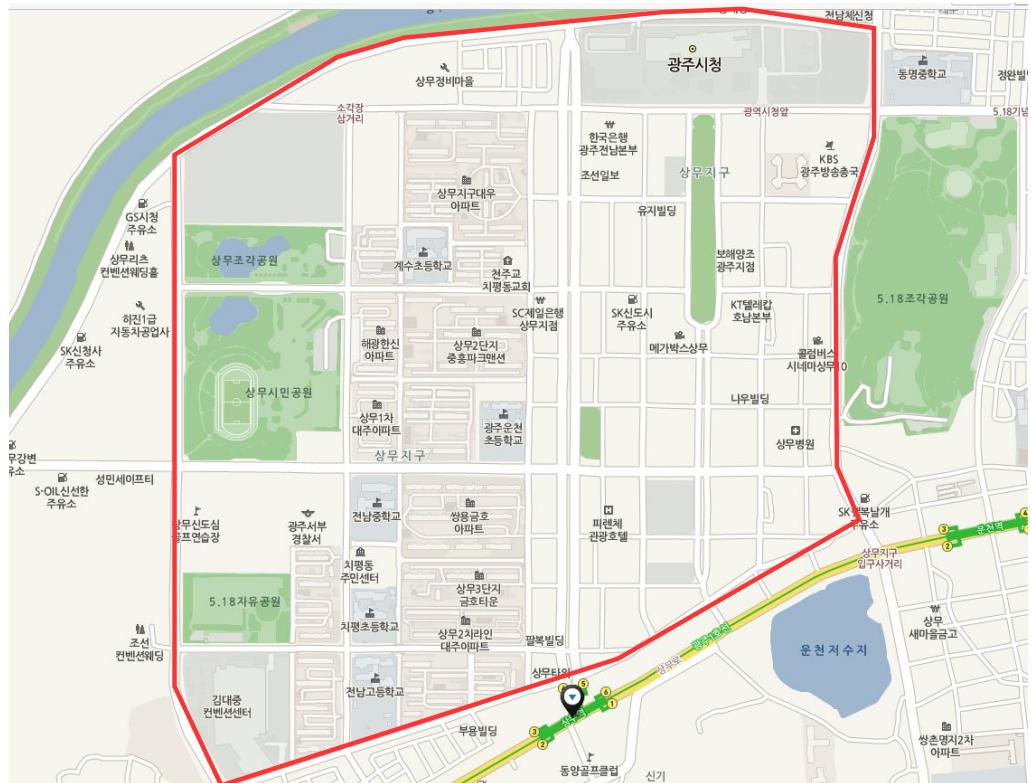
그리고, 평면적 지구 형태에 무분별한 건물의 도입으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녹지 흐름의 연결 차원에서의 지형의 활용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 개발이 완료된 택지개발인 상무신도심에서 상무역의 역세권⁶⁴⁾이라 할 수 있는 시청로 주위를 사례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6] 사례연구대상지 위치도

64) 역세권(驛勢圈) : [명사] 기차나 지하철역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

광주광역시의 신도심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된 상무지구의 전체 면적은 약 327ha로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지구의 평균 면적인 79.8ha⁶⁵⁾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이며, 광주시청 · 광주시서부교육청 · 금융결제원 등의 각종 공공시설과 상업 업무시설이 입지하여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 상무역이 지구의 남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 사례연구대상지 주변

나. 공공시설물의 분류

광주 상무신도심의 공공시설물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무 신도심에 설

65) 1km² = 10ha

치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물의 종류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공공시설물의 배치 현황과 디자인에 관련된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 3 장 공공시설물의 구성요소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은 사용 목적, 기능, 역할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상무 신도심에서 파악된 공공시설물의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조명계, 교통계, 편의계, 정보계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물을 선정하였다.

기능 분류	시 설 물 종 류
조명계	가로등, 전기분전함
교통계	버스정류장, 수목보호대, 가드레일, 불라드
편의계	전화박스, 가로화분대, 벤치, 휴지통, 맨홀
정보계	방향지시판

[표 23] 공공시설물의 분류

3.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교통안내 표지판

교통안내 표지판은 복잡해지는 도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도시민들에게 보다 명쾌히 길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도시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고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록에서 운전자는 교통안내 표지판을 피로⁶⁶⁾감 없이 쉽게, 그리고 적절한 거리에서 명확하게 인지되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방지하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다. 또한 보행로에서 훨체어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도 더불어 사용할 수

66) Interlaken : 스위스 중부 베른주(州) 남동부에 있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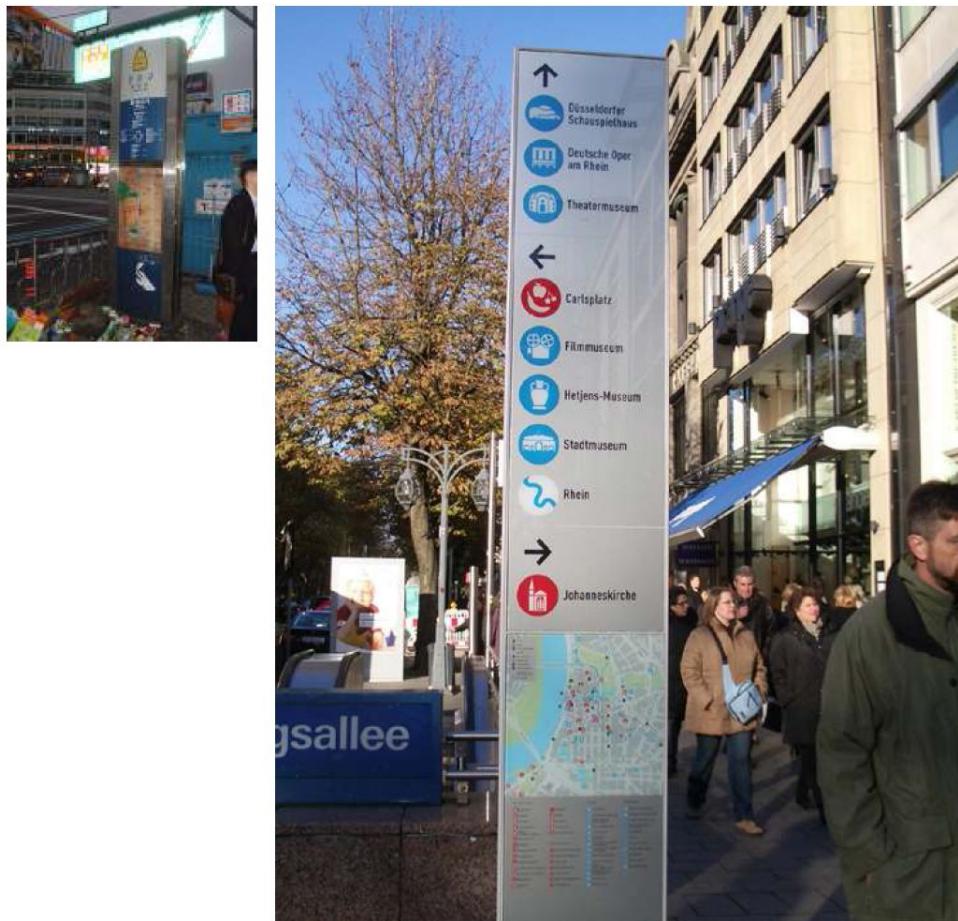
있는 낮은 높이와 점자 안내지도가 설치된 안내대, 대비효과를 이용하여 가는 길이 명쾌히 안내되는 하도 사인, 가시성과 명시성이 높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림 8] 교통안내 표지판 – Interlaken

도시안내 표지판

길 찾기 지도는 복잡해진 도시 속에서 도시 구성원 모두가 시력의 차이나 지도 보는 능력 차이에 관계없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친절하게 해냄으로서 정보 전달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커다란 글씨와 명료한 색채, 명도 대비, 사람 키만큼 커진 각종 시설 안내지도 등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심리적 편안함과 잘 찾게 되었을 때 자신감과 독립심과 프라이버시 보호 까지도 느끼게 해준다.



[그림 9] 도로안내 표지판 – Dusseldorf⁶⁷⁾

공공안내 표지판

대형공공환경에서 길 찾기 안내판은 길을 놓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여행객들이 보다 쉽게 행선지를 찾아 편안하게 이동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대형 공항터미널의 길 찾기 사인이 기존의 것과 달리 청색과 노란색 대비를 사용하여 아름답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적소에 이정표처럼 비치된 안내도, 멀리서도 보이는 화장실 사인 등은 미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발전 모

67) 뒤셀도르프 《독일 라인 강가의 항구 도시》

습을 미리 보게 한다.



[그림 10] 공공안내 표지판 – Dusseldorf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은 시민이면 누구나 어떠한 조건에서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접근되고 사용될 수 있으며, 위생적인 기능만을 제공하는 장소이기 보다는 보다 친밀하고 아름답게 휴식문화적인 기능도 수행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녀 어른 누구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도 일반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민들을 포괄적으로 배려해 나가는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 11] 공중화장실 – JC Decaux⁶⁸⁾

공중전화 부스

넓은 공간이 필요한 장애인, 짐 있는 사람,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 등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 부스는 단지 편안함보다는 도시인의 정신적 정서적

68) JC Decaux(JC 드코) : 본사소재지_ 파리, 매출기준 유럽 최대, 세계 2위 옥외 매체사, JC 드코는 버스 쉘터 뿐만 아니라 공중 화장실, 공중전화, 재활용 휴지통, 복합 기둥 등에 연이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시키며 광고 매출과 도시 미관의 수호자로서 기업 이미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블루오션 전략’에서도 분석되었듯이 JC 드코의 독창적인 Street Furniture 개념은, 거리 시설물을 아름답게 디자인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아 기존 거리 시설물 시장을 거부하던 광고주를 시장으로 끌어들여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Tong - forcemajeure님의 기본통

건강과 문화의 기회를 배려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미래도시의 발전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 12] 공중전화 부스 – JC Decaux

휴지통

미래의 가로환경은 다양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해주며, 도시민의 예술과 문화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쓰레기 종류를 투입구 주변에 안내해 주는 휴지통 등은 도시인의 삶을 풍

요롭게 하며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게 해준다.



[그림 13] 휴지통 – Dusseldorf

휴게 공간

미래가로환경 중 사람이 다니고 머무는 길과 휴게공간은 도시인의 신체적 피로감과 정서적 삭막함을 풀어주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으며 도시 미관에 가

치를 더해 주는 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림 14] 휴게 공간 – Dusseldorf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가 쉽게 정돈된 형태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고리만 걸쳐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정류장 사례 등은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포용력 있게 배려한 사례

로서 미래 친환경 이동 시설의 발전된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그림 15] 자전거 거치대 – Dusseldorf

거리공원

누구나 차별적 관심을 끌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갖추고 사용자가 관심과 애착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문화가 살아 느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휠체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사용 가능한 공원 내 안내 사

인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안전한 시설, 누구나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음수전,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분수와 휴게 시설물은 차별 없이 도시문화를 접하게 한다.



[그림 16] 거리공원 – Paris

각종 상업 사인물

도시간판은 다양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해주며, 도시민의 예술과 문화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업 사인물은 대부분 관리가 소홀해 난잡하고 통일성이 없

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림 17] 각종 상업 사인물 – Dusseldorf

제 4 장. 연구분석결과

1. 현황 및 문제점

상무신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은 매우 다양하여 가장 대표적인 시설물인 가로등을 비롯하여 버스정류장, 수목보호대, 가드레일, 볼라드, 전화박스, 벤치, 휴지통, 맨홀, 방향지시판 등 총 10가지의 공공시설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배치, 디자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가. 가로등

가로등은 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가로를 따라서 설치한 조명시설로 다른 가로시설물에 비하여 규모가 커서 가로 경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아름다움 보다는 기능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상무신도심에 설치된 가로등의 종류는 4종류정도이며 현재는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있는 가로등은 없으나, 불법 광고부착물이 부착되었던 흔적들이 남아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닥과 가로등이 접하는 부분의 마루리가 깔끔하지 못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 전기분전함은 도로 측의 버스정류장과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았고, 분전함의 상단에 위험이나 전압이 표시되어 있으나 가까이 가서 읽어야만 판독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회색의 철재와 직사각형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나 일부 된 곳도 있으며 도로 측 보행로에 여러 개의 전기분전함의 설치로 보행자의 통행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보도의 이미지를 저하한다.



[그림18] 가로등의 부식된 앵커 볼트

나.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은 버스에 타고 내리는 승객을 위해 버스가 정차하는 곳으로 버스진입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박스형 가로시설물 형태이다. 이로 인해 좁은 도로일 경우 보행 유효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용자들의 유효 보도 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며, 박스형 가로시설물에 전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 투명감은 주고 있으나 일부는 과다한 부착물로 이용자들의 시야가 차단되고 있다.



[그림 19]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버스정류장

다. 수목보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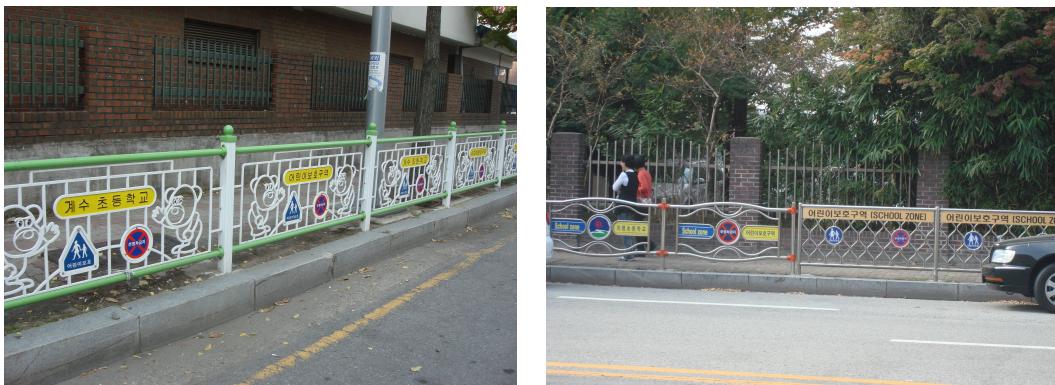
수목보호대는 수목 아랫부분에 설치함으로써 뿌리부분이 포장에 매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한 그 공간으로 수분 흡수, 공기 순환 등으로 수목의 생육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상무신도심에 설치된 수목보호대는 설치 시 치밀한 마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해 보도 바닥과의 단차가 생겨 보행 통행성 및 안전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정 범위의 가로와 공간에 여러 디자인의 수목 보호대로 통일감이 떨어져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림 20] 통일감 없는 수목보호대

라. 가드레일

가드레일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양쪽에 설치한 방호책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설치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물이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우려되는 장소나 이용자의 무단출입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보행로와 차로의 연속된 구분이 필요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상무신도심의 가드레일은 일정 범위의 가로와 공간에 복잡하고 여러 디자인으로 통일감이 결여 되어 시각적 혼란을 가져온다.



[그림 21] 과도한 디자인의 가드레일

마. 볼라드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人道)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시설물, 또는 통행 주체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말뚝형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상무신도심은 볼라드로 인해 보행 장애를 일으킬 만큼 너무 많은 설치, 일정 범위의 장소와 공간에 조화 되지 않은 설치로 도시 미관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림 22] 과다 설치된 볼라드



[그림 23] 통일감 없는 볼라드

바. 전화박스

전화박스는 공중전화를 설치하여 놓은 상자 모양의 시설물로 휴대폰이 보편화 되어 공중전화 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화박스를 찾는 이용객이 거의 없고 불규칙하고 편중된 배치와 다른 가로시설물과의 조화롭지 못한 디자인, 색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림 24] 이용자가 거의 없는 공중전화박스

사. 벤치

벤치는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휴게시설로서 정적인 공간에 설치되며,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이다. 벤치에서 휴식, 독서 등의 다양하게 이용되는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공간의 한 오브제가 되어 쾌적한 환경을 연출해 주기도 한다. 이용객의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 또는 멈추거나 기다리는 장소가 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하나 소극적인 설치로 벤치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상무

시민공원에 있는 벤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시설물로 디자인 되었다. 일부는 잔디 유지가 힘든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등이 주변에 설치되지 않아 야간사용자 식별 및 방범예방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25] 시민공원에 설치된 벤치



[그림 26] 보행로에 설치된 벤치

아. 휴지통

공공위생을 위하여 설치되는 옥외 휴지통은 이용하기 편리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하기 쉽도록 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고 내화성,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청결함을 위해 통풍과 건조가 잘 되는 구조가 좋으며 유동 변화와 공간 구조에 따라 배치, 간격,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디자인은 가급적 단순화 시키는 것이 좋으며 안정감 있고 청결한 느낌의 디자인이 좋다. 휴지통은 휴게공간이나 버스·택시 정차대 주변 등 보행자가 많이 멈춰서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나 종량제 실시 이후 모두 철거되어 상무 신도심에서는 휴지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자. 맨홀

맨홀은 노면(路面)에 지하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게 만든 구멍으로 쉽게 간파할 수 있는 하수도 시설물이지만 구조적인 안정성, 내구성, 기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시설물이다. 일정 범위의 장소와 공간에 여러 개의 맨홀이 통일감 없이 설치되어 도로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바닥 마감재가 정교하게 마무리 되지 않아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 된다.



[그림 27] 보행로와 조화되지 않는 맨홀

차. 방향지시판

방향지시판은 필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자나 도형, 색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표식, 상징, 안내 및 전달, 위치 등의 방향성과 인식성을 확보해 주는 시설물이다. 상무신도심의 방향지시판은 설치 장소의 주변 환경요소(가로수, 신호등)와 여러 형태의 사인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그림 28] 가로수에 가려 보이지 않은 사인물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심의 공공시설물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류	대상과 기능	현황 및 문제점
조명계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가로등, 전기분전함	지면 결합 부위의 마감 처리 미비와 불법광고물 부착
교통계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과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를 구분하는 시설물 버스정류장, 수목보호대, 가드레일, 볼라드	볼라드에 의한 보행 장애, 볼라드 과다설치, 통일감 결여
편의계	이용자들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전화박스, 벤치, 휴지통, 맨홀	미관을 저해하는 장소 설치
정보계	정보 시설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각종 사인물 방향지시판	크기, 형태, 색상, 재질 등 다양, 관리소홀, 불법점유

[표 24] 시설물 현황과 문제점 분석

위에서 보여 지는 여러 문제점들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 항상성(Constancy)의 관점 >

-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의 부족으로 시설물이 노후 되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을 조성한다.
- 휴지통, 벤치, 전화박스 등 편의시설들이 놓여 진 위치가 일정하지 못해 사람들의 이용에 혼란을 가져온다.



[그림 29] 시설물 관리의 부재

< 상호 소통(Interact)의 관점 >

- 적절한 안내 표지판의 부족으로 사람들의 이용에 혼란을 가져온다.
- 통일되지 않은 각종 안내 시설물과 정보 표시판은 상무신도심의 이미지를 해치며 가시성을 떨어뜨려 사람들을 주목시키지 못한다.
- 일방적인 정보전달 방식으로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며, 기본적인 날씨

와 뉴스 등을 전달하는 정보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림 30] 이미지를 헤치는 표지판



[그림 31] 계획성 없는 표지판

< 복합성(Complexity)의 관점 >

- 시설물의 이미지가 통일되지 않고 관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이미지 형성에 장애가 된다.
- 이용자들의 행동을 고려한 시설물 디자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여 활용되지 않는 시설물들이 있다.



[그림 32] 통일성 없는 가드레일

2. 공공시설물의 개선방향

공공시설물의 집합은 가로경관에 포인트가 됨으로 기능적 측면만이 강조된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지역 개성을 적극적으로 연출함으로서 양호한 도시경관 형성과 주민에게 친근감을 부여한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은 보행 및 교통장애를 피하기 위해 복수의 가로시설물을 디자인상 일치시키는 통합과 복수의 가로시설물을 하나의 구조체에 부착시키는 통합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합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료, 색채, 형태 등에 대해 가로시설물 디자인의 조정 계획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시설물은 건축물에 비해 내구년수가 짧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고장 및 파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나 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디자인 지침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설치 주체가 각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한 기준 및 완제품의 충분한 재고량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기성품 샘플속의 디자인이 달라지면 보수를 필요로 하는 가로시설물의 디자인도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류별로 2~3가지 이상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연속적인 배치를 필요로 하는 동일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의 다양화는 가로공간의 연속성 단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각 시설별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에서 분석한 공공시설물의 개선 관리를 정리해보면 가로등은 일정간격으로 연속 설치되므로 단체로서의 디자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주나 측주는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여 현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행로의 결합 부위의 마감 처리를 깔끔하게 하여야 한다. 버스정류장은 버스 진입방향에 설치됨으로 인해 시선 차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주변의 시설물에 의해 접근·대기·승하차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비, 눈 등 자연 요소의 차단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정류장의 벤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목보호대와 맨홀은 포장패턴과 일체화를 시키고 가드레일은 형태를 단순하게 하고 부착물을 최

소화하여 시각적 장애를 줄이도록 한다. 보행자가 쉽게 넘지 못하는 높이로 설계하고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게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한다. 보행 편의성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볼라드는 지름을 줄이고 높이를 높여 보행자 통행성과 인지성을 제고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볼라드는 지름을 크게하고 높이를 낮춘다.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게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야간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반사띠를 부착 한다. 일정 범위의 가로와 공간에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며, 재해 등 비상시에 구급차량 등의 진입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 하여 고정식과 가동식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벤치는 수목주변에 설치할 경우가 많으므로 좌면의 틈에 낙엽, 쓰레기 등의 쌓이는 것에 고려하고 볼트 등이 돌출 되지 않도록 하며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휴지통은 빗물이나 눈 등이 들어가기 쉬우므로 투입구나 회수구의 위치 및 배수구 등을 고려하고 회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유동 변화와 공간 이용에 따라 배치, 간격,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디자인은 가급적 단순화시키고 안정감 있고 청결한 느낌으로 한다. 방향지시판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지성을 고려하여 규격을 산정하고 앞 뒷면에 표기요소를 적용한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있어서는 설치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다양한 설치장소의 경관과 타 시설물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운영 실태 및 관리방법에 적합한 시설물로서의 개발이 중요하며 다양한 공공시설물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도시경관형성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설물 개체의 디자인이 개성을 억제하고 가로 전체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	디자인 고려사항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체의 디자인에서 낮과 밤의 경관 고려 일정 간격으로 연속 설치됨으로 그룹으로서의 디자인 고려 지주나 측주는 저명도, 저채도 사용
버스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 공간 확보 운전자와 승객 상호간 인지가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자연요소의 차단 고려 버스표지판과 쉘터 일체화 주변 시설물에 의해 접근·대기·승하차 등 불편 해소
수목보호대, 맨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 포장 면 위 포장 패턴과 일체화
가드레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를 단순화 하고 부착물 최소화 자극적인 색채 및 표면처리 지향 보행자가 쉽게 넘지 못하는 높이로 설계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게 처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볼라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에 명확하게 보이는 높이 유지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게 처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연속 설치되는 경우형태 및 색채 고려 야간의 시인성 확보 위해 적절한 위치에 반사띠 부착 비상차량 진입 위한 고정식과 가동식의 디자인
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지·관리 용이하도록 디자인 좌면에 볼트 등이 돌출 예방(안전사고 예방) 배수처리가 원활한 구조로 설계(빗물 오염 방지) 보행자 공간 확보
휴지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장식 금지 내용물 수거 편리한 구조로 설계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게 처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설치 장소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디자인
방향지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지성 우선으로 규격 산정 앞뒷면 표기요소 적용 자극적인 색채 지향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구조 고려

[표 25] 공공시설물 디자인 고려사항

-
-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시설물의 구조·강도·표면처리 등이 설치 장소의 면적, 위치 등에 적합하며 주변의 다른 시설물과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할 것
 - 주재와 부재의 접합 부분 및 지주와 측주 등의 연결 부분에 마무리가 미려하고 부위별 사용 소재에 따른 가공방법, 표면처리가 적합하여 빗물, 눈, 낙엽, 먼지 등이 쌓이지 않고 개체의 디자인이 우수할 것
 - 사용자의 저촉에 무리가 없는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시각, 촉각, 후각)
 - 개체로서의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고 채도와 명도가 낮은 색채의 사용으로 단체로서의 디자인이 우수할 것
 - 도로용 조명에 표식을 부가하고 이벤트 등의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배너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설치한 후 필요에 따른 기능 추가가 가능 할 것
-

[표 26] 설치장소에 적합성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 가능한 설치 위치를 차도 측에 붙여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할 것
 - 시설물의 설치 위치 및 방향 등이 정확하도록 유의할 것
 - 다양한 시설물이 근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중요한 정보가 묻히지 않도록 정리하고 통합하여 설치할 것
 - 시설물이 집중되는 장소에서는 지주를 공용할 것, 이때에는 처음부터 공용을 고려한 통합 주를 디자인하여 침가하는 시설물의 볼트 등이 돌출 되는 것을 피할 것
 - 시설물이 집중되어 폐쇄공간이 발생되면 쓰레기들이 방치되므로 폐쇄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소재에 따라 노면과의 접합부에 부식이 생기기 쉬우므로 항상 장치물의 상태를 관찰 가능토록 설치할 것
 -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대항 수리, 보수, 정비, 청소가 용이하도록 공간적으로 여유있게 설치할 것
 - 기초부분이 노면보다 돌출하면 보행자가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므로 노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할 것
 - 모든 시설물은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설치 위치를 명확히 할 것
-

[표 27]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제 5 장. 결 론

우리나라도 이제는 살기 좋은 도시이다. 삶을 가꾸는 문제가 구체화되고 정신적,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기대하게 되었다. 오늘 날 세계도시들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 속에는 자연환경의 조성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도시 속의 삶을 구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도시 공간을 질 높은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한정된 대상이나 일부 계층의 시민들만의 몫이 아닌 도시민 전체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늘 새롭게 변하고 있으며 도시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 아래 후세에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줄 수 있는 지속 발전 가능한 생태도시를 꿈꾸고 있다. 그 중 도시 사람들의 문화와 일상의 삶이 담겨 있으며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공공공간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와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친공공공간의 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의 기본은 인간과 장소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인간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공간과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인간 존중이 공공공간을 이루는 가장 바탕이 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공공공간과 인간은 긴밀하며 긍정적 관계의 주심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시설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시설물의 개선 전략은 친공공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심의 가로시설물은 개별디자인, 동일 가로시설물의 다양한 디자인과 세련미의 부족 등 시설물의 기능과 가로 경관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로시설물은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며 설치 목적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능한 관련시설별로 집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계획시에는 현재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 디자인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통합적 설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간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공공시설물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간에서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돋는 service의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공공간의 시설물이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를 항상성(Constancy), 상호 소통(Interact), 복합성(Complexity)으로 정의하였다. 항상성(Constancy)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요소(pre-service)이며, 관계의 영역과 범주, 관리(management)의 문제이다. 항상성은 시설물의 초기 플래닝(Planning)에서부터 유지, 관리까지 모든 부분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상호 소통(Interact)은 직접적인 서비스(in-service)로 사람들에게 작용하며 디지털 환경의 발전은 더욱 적극적인 소통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합성(Complexity)은 공공환경을 통합하고 사용자의 복합적 행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Perspective-service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물 전략을 바탕으로 상무신도심의 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공공공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시설물의 디자인은 기능과 외관의 개선에서부터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의 방법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보여준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공공환경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선진도시의 성공적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현재 우리나라도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문화와 사람들의 이해 없이 선진 도시의 사례들을 답습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방향 연구가 앞으로 우리의 도시들이 경쟁력 있는 공공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방향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남영우, 서태열, 도시와 국토, 법무사, 1995
임승빈, 조경이 만드는 도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고성종, 고필종, 도시와 환경디자인, 미진사, 1992
고성종, 고필종, 도시환경과 개방공간 디자인, 미진사, 1999
이연숙, 유니버설 디자인, 태림문화사, 1999
이진민, 공공환경 디자인 論, 중앙 M&B, 1998
E Relph,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Yi-Fu Tuan, 공간과 장소, 대윤, 2005
권영걸,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산책, 사미현, 2008

논문

- 임숙현, 도심의 공공공간으로서의 보행자 전용가로 모형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윤영주, 도시환경에 있어 가로공간의 슈퍼그래픽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권범철, 서울광장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윤승로, 도시환경 색채분석을 이용한 가로시설물 색채배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한선아,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통합에 의한 가로경관 개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송호진, 도시가로시설물의 정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6

연구보고서 및 학술지

이규직, 도시경관 구성에 관한 지각적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16권, 1982

이채홍, 살고싶은 도시와 어메니티, 국토연구원, 2006

이광노, 가로공간의 구성요소로서 가로와 가로 건축물에 관한 소고, 대한건축학회
발표 논문집 제12권 제2호, 1992

김현선,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연출기법, 도시문제, 32권 345호, 1997

문화관광부,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2005

한국디자인진흥원, 국민과 함께하는 Design, 2008